김일성동지와 위 대 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위 로 당 중 앙 원 회 기 동

제 7 2 호 【루계 제 2 4 8 5 0 호 】 주체 1 0 4 (2 0 1 5) 년 3 월 1 3 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공동구호의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자력갱생은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 운 전통이며 백승의 기치이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당 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 구호에 제시된 이 전투적호소에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조국에서 연길폭 탄의 력사를 배우며 자라난 우리 군 대와 인민의 불굴의 기개를 남김없 이 발양시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선군조선의 위용을 더 힘있게 과시 하려는 우리 당의 드팀없는 의지가 맥박치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은 우리 식, 우리 힘으로 세계를 앞 서나가겠다는 자신만만한 투지와 백 절불굴의 공격정신을 지니고 공동구 호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자력갱생의 위력을 높이 떨쳐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갱생궤도우에서 페허우에 천리마가 날아올랐고 인공지구위 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이 탄생하는 민족사적기적이 일어났 습니다. 》

자력갱생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확고히 견지하 여야 할 혁명적원칙이다. 력사의 교훈 은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의 도움과 원조에 기대를 걸거나 남의 식을 따 르게 되면 치욕과 망국의 운명을 면 할수 없다는것을 새겨주고있다.

7 0성상에 걸치는 우리의 부강조 국건설력사를 쥐여짜면 자력갱생이 라고 말할수 있다. 자력으로 사회주 의를 건설하는 나날에 우리 인민은 전대미문의 시련과 난관을 겪었지만 수천년민족사를 다하여서도 누릴수 없었던 모든 영광을 맞이하였다. 우 리가 외세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력 의 원칙을 포기하였더라면 주체의 사회주의는 지구상에 태여나지도 못 하였을것이며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함께 우리의 국호도 빛을 잃

었을것이다. 새로운 주체 1 0 0 년대는 자력 도움으로 살아가려는것보다 더

갱생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우리 혁 명력사에서 또 하나의 분수령으로 되고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조 선민족제일주의정신, 민족자존의 정 신력이 최대로 분출되고있다. 천만 군민의 가슴마다에 기어이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 식대로 혁명과 건 설을 전진시키고 아름다운 꿈과 리 상을 실현하려는 철석같은 신념이 세차계 고동치고있다. 우리 인민의 피땀이 어려있는 강위력한 자위적 전쟁억제력으로 미제와 그 추종세 력들의 온갖 책동을 단호히 짓뭉개 며 최첨단돌파전의 열풍, 우리 식 현대화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 가고있는것이 오늘의 선군조선의 긍

지높은 현실이다. 자주의 신념, 불굴의 투쟁의지로 하는것이 혁명이며 그것으로 하여 빛나는것이 혁명가의 인생행로이 다. 높은 산을 넘어야 보람이 있고 진펄길을 걸어야 발자욱이 더 깊이 찍히게 된다. 공동구호관철을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은 우리 혁명의 영 웅적투쟁전통을 빛내이며 최후승리 를 앞당기기 위한 자력갱생대진군의 힘있는 박차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따르며 자기 힘, 자기 식이 제일이라 는 혁명의 철리를 배우고 이 세상 그 어느 나라도 겪어보지 못한 시련의 고비들을 무수히 넘으며 자주,자 립, 자위의 강국을 일떠세운 우리 인 민에게는 자력갱생외에 다른 길이란

지금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환장이 된 미제는 정치군사적압력과 함께 경제적제재봉쇄책동을 그 어느때보 다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우리가 선택한 사상을 거세하고 우리가 세 운 제도를 허물자는것이 미국의 정 책적목표이다. 미제의 비렬한 제재와 압박의 도수가 악착해지는것만큼 우 리는 자력갱생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퍼올려야 한다.오늘의 세계에 서 남의 힘으로 자기를 지키고 남의

자력갱생,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고 존엄이며 승리이다. 혁명투쟁의 환경과 조건은 달라질수 있지만 제 힘을 믿고 자력으로 강성번영을 이 룩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 민의 신념은 절대불변이다. 우리는 조선은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 떠서지 못한다고 하던 미제에게 조 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던 천리마 대고조시기처럼, 력사에 류례없는 시련을 단독으로 강행돌파한 고난 의 행군, 강행군시기처럼 선군조선 이 제국주의반동들의 온갖 도전과 천만시련을 어떻게 물리치며 세계 에 솟구쳐오르는가를 톡톡히 보여

주어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은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공동구호판 철을 위한 투쟁을 파감하게 벌려나 감으로써 내 나라, 내 조국의 강성번 영의 기상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적인 진 리로 받아들이는 투철한 혁명적립장 을 지녀야 한다.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의 집대성이다. 여기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이 담겨져있고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이 구현되여있으며 우리 혁명의 실천적 요구가 깃들어있다. 공동구호관철이 자 강성국가건설의 힘찬 활력이고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의 빛나는 실 혀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절대 성, 무조건성의 정신, 바로 여기에서 그 어떤 시련도 맞받아나가려는 각 오도 생기고 자력갱생의지도 발현 되게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을 가슴깊이 새기 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 당과 끝 까지 생사운명을 함께 할 고결한 충 정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사람이라 면 당정책을 신념화하여야 한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공동 구호의 전투적과업을 자기의 뼈와 살 로 만들어야 하며 한치의 드림도 없 이 관철하려는 결사의 의지를 지녀 야 한다.당이 준 파업을 당에서 정 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 에서. 이것이 공동구호관철에 떨쳐나 선 우리 인민모두의 혁명적기질로, 풍모로 되여야 한다.

패배주의, 보신주의는 오늘의 자 력갱생대진군에 제동을 거는 위험한 사상요소이다.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이 없고 앞 으로 전진하려는 적극성과 대담성이 없으면 열려진 길로도 제대로 나갈 수 없고 미래를 앞당길수 없다. 패배 주의, 보신주의가 가닿게 되는 종착 점은 타락과 변질, 배신의 길이라는 것이 력사가 새겨주는 철리이다. 우 리는 현시기 당에서 패배주의, 보신 주의와의 투쟁을 그처럼 강조하는 의도를 톡톡히 알고 사상판점에서부 터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 들은 공동구호관철을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을 패배주의, 보신주의와 같은 그릇된 사상요소들을 뿌리빼 는 투쟁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한 다. 앉아서 조건타발이나 우는소리 를 하고 이미 거둔 성과에 만족하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특히 일군들속에서 패배주의, 보 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강 도높이 벌려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은 자기 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립장을 지 니고 자체로 일떠서기 위한 기업전 략, 경영전략을 바로세우며 작전과 지휘를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 해나가야 한다. 인민군대 지휘관들의 창조정신, 투쟁본때를 적극 따라배워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기수, 전위투사가 되여야 한다. 자기의 뼈를 깎아서라도 공동 구호의 전투적과업을 끝까지 관철

당의 부름이라면 천만산악도 떠옮길 결사관철의 투쟁본때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발이 닳도 과학기술의 소유자가 되기 위하여 록 뛰고 또 뛰여야 한다.

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하다. 자력갱생은 전인미답의 초행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어려운 투쟁이다. 더우기 오늘과 같은 지식경제시대에 우리가 자체의 힘으로 세계를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과학기 술을 틀어쥐여야 한다. 오늘의 자력 갱생은 과학기술이라는 기관차를 앞 세우고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해나가 는 민족자존의 정신, 최첨단돌파의 정신이다.

지금 우리앞에는 농산과 축산, 수 산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고 전력생산을 늘이며 온 나라의 수림 화, 원림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것을 비롯하여 어렵고도 방대한 과 업이 나서고있다. 이 모든 사업에서 의 성과여부가 중요하게 과학자, 기 술자들의 역할에 달려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으로 인민의 락원 을 일떠세우자!》,《과학연구사업은 제국주의와의 첨예한 대결전이다!》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특출한 연구 성과로 자력갱생대진군을 힘있게 추동해나가야 한다. 현실에서 절박 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푸는데 력량을 집중하며 기발한 착상과 혁신적인 발명, 새로 운 첨단기술분야의 개척으로 선군 조선의 비약의 기상을 높이 떨쳐나 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과학기 술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우리 의 주체적력량과 기술에 의거하여 현대화를 다그쳐나가야 한다. 최첨단 돌파전은 바로 자기 초소와 일터에 서 자기들이 벌려야 한다는 주인다 운 자각을 가지고 우리 조국의 모든 것을 세계에 없는 사회주의재부로 만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 다. 우리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사 상을 심장에 새기고 누구나 현대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생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과학 과 건설에서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 히 지켜 모든 창조물의 질을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워야 한다.

>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우리 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예비와 가 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자력갱 생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나가야 한다.

자기의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 게는 페물도 보물로 보이는 법이다. 누구나 금은보화 가득한 전설의 나 라라고 노래만 부를것이 아니라 너 도나도 떨쳐나 이 땅의 모든것을 보 물로 만들 때 내 나라, 내 조국은 강 성국가의 령마루에로 더 빨리, 더 힘

차게 솟구쳐오를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은 우리의것을 가지고 우리의 멋이 나는 우리 식 번영을 이룩해나가겠 다는 확고한 관점을 지녀야 한다. 자 기 부문, 자기 단위에 이미 마련된 토대와 잠재력을 최대한 발동하고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 아내면서 걸린 문제를 자체의 힘으 로 풀어나가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 하여야 한다.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대로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바 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잘 리용하 며 농업지대나 공업지구나 할것없이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지방경제 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누구나 생 산정상화와 증산의 예비와 가능성을 찾기 위하여 늘 머리를 쓰고 이악하 게 노력하며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한방울의 물, 한 g 의 석탄과 한W의 전력이라 도 극력 아껴쓰는 애국헌신의 기풍

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수입병을 결정적으로 뿌리빼야 한 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사 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 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라!》라는 구호를 틀어쥐고 실 천투쟁속에서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전체 인민을 자력갱생대진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혁명의 전 세대들이 발휘한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을 대중속에 깊이 심어주기 위 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 려나가야 한다. 맨손으로 뜨락또르 와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낸 그 투 지,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주를 정 복한 그 정신을 줄기차게 이어나가 도록 하여야 한다.특히 모든 일군 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에 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을 최대로 발휘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강계정신의 고향인 자강도와 혁명적대고조의 봉화가 타오른 성강을 비롯하여 지난 시기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평가를 받은 훌륭한 전통을 가진 단위들이 계속 시대의 본보기가 되고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수로 돌격해나가도록 해당 당조직 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에서 일군들이 사무 실적사업방법과 소방대식일본새를 극복하고 지도를 아래에 접근시키며 공동구호관철에서 나타나는 편향들 을 제때에 포착하고 바로잡아나가도 록 적극 떠밀어주어야 한다. 여러가 지 과업들이 제기되고 부족한것이 많은 오늘의 실정에 맞게 일군들모 두가 중심고리를 정확히 찾아쥐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여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자랑찬 승리를 이룩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자력갱생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투쟁전략이다. 모두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당 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 구호의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해 나가자.

황해남도 일군들과 당원들

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 로자들은 서해갑문-신천-강령, 옹진물길을 비롯하여 4 5 0 여리에 달하는 판개물 길에 대한 대보수공사를 열흘 동안 끝냄으로써 재령벌을 비 롯한 서해안곡창지대 2만 5천여정보의 논에 대동강물 을 안전하게 댈수 있는 확고한

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 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황남땅에 만사람을 놀래우 였다.

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당중앙 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정신 을 높이 받들고 올해 알곡생 산목표수행의 돌파구로 되는 물문제해결에서 커다란 성과 를 이룩하였다.

담보를 마련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젔

9

훈

0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 도당위원회에서는 나라의 농업발전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 빛내이며 올해 당이 제시한 알

수공사를 진행할것을 발기하

서해갑문-신천-강령, 옹 진물길은 그 길이가 330여 리로서 신천, 벽성, 태탄군을 비롯한 황해남도 10개 군의 많은 면적의 논에 대동강물을 보장하는 관개물길이다.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80년 대 후반기 황해남도농민들이 농사를 보다 안전하게 지을수 있게 서해갑문을 막아 대인공 호수로 전변된 대동강의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서해갑문— 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 신천-강령, 옹진물길공사를 정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몸소 발기하시였다. 그리고 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낼수 있 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

주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 리지 않는 인민군군인들과 물

댈수 있게 96만여㎡의 토량을 처리하고 450여리 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 길건설자들의 드높은 열의에 것을 결심하고 지체없이 협의 기 위해 방대한 판개물길대보 의해 거창한 판개물길건설은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공되

물길공사가 완공된 때로부 터 지금까지 재령벌로부터 서 해 한끝 강령, 옹진군에 이르 는 도의 여러 군의 농업근로자 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고마움을 금치 못해하 나라의 농촌수리화완성에 며 벌마다 흘러드는 대동강물 로 마음껏 농사를 지어왔다.

그러나 지난해에 들이닥친 100년래의 왕가물로 대동 강의 수위가 낮아져 물길바닥 을 낮추지 않으면 2만 5천여 정보에 달하는 논에 대동강물 을 대기 힘든 불리한 조건이 조성되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450여 리에 달하는 관개물길대보수 공사를 진행하여 위대한 수렁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 을 더욱 빛내이며 올해 알곡생 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

회를 열었다. 물길대보수공사량은 실로 방대하였다. 물길너비가 보통 수m, 최고 3 0m나 되는 300 여리의 서해갑문-신천-강 을 그 정도 낮추어야 하였다. 처리해야 할 토량만도 96만

여m³에 달하였다. 아직 추위가 풀리지 않고 봄철영농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공사를 끝내야 하는것으로 하여 시간적으로 도 매우 긴박하였다.

하지만 도당위원회에서는 닭알에도 사상을 재우면 바위 를 깰수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기고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 발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 을 짜고들었다. 능력있는 당, 행정일군들로 물길대보수공사 지휘부가 조직되고 구체적인

분담이 이루어졌으며 공사에 설계와 시공을 따라세우도록

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 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로 과 삼천군의 7개 협동농장에 동자, 사무원들이 결사의 각오 서 달려온 일군들과 농업근로 령, 옹진물길구간에서는 바닥 를 가지고 봄철영농기전에 방 을 1 m정도 낮추어야 했고 그 대한 물길대보수공사를 끝내 밖의 150여리 물길도 바닥 기 위한 전투에 일제히 들어 갔다.

공사에 동원된 모든 단위의 당조직들에서는 공사현장에 방송선전차를 비롯한 선전선 동수단들을 총집중시켜 사상 의 포문을 열고 대중을 위훈창 조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집 중포화를 들이대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할 열의에 넘쳐 한사람같이 떨 쳐나선 도의 일군들과 당원 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으로 공사장은 불도가니마냥 끓어

황해남도에서 열흘동안에 2만 5천여정보의 논에 대동강물을 안전하게 물길대보수공사 진행

> 인입수로보수공사장은 그야말 로 격전장을 방불케 하였다. 신천군의 10여개 협동농장 섞인 감탕을 질통에 지고 달 렸다. 이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렬한 전투를 벌려 열 흘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3 만 5천m³의 감탕을 파내고

> 안악군과 은천군의 일군들 과 농업근로자들도 양수장인 입수로, 용배수로공사를 맡아

맡은 공사과제를 질적으로 끝

힘있게 내밀었다.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일군 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올해 또다 시 정보당 1 Ot이상의 알<del>곡을</del>

신천군 청산 1 단양수장의 쳐나섰다. 공사에 참가한 군의 농업근로자들은 4 Okm에 달 하는 인입수로보수공사를 짧 은 기간에 표준설계의 요구대 로 질적으로 끝냈다. 농업근로 자들만이 아닌 군의 로동자, 자들, 도농촌경리위원회 일군 사무원들은 물론 가두인민반 들은 얼음장을 까내고 감탕판 원들도 며칠안에 2 7만여m³ 군의 1 1 0여개 농장에서 대 에 뛰여들어 물길바닥의 얼음 의 토량을 처리하는데 크게 한 동강물로 올해농사를 안전하 몫 하였다. 은천군 일군들과 근로자들

은 집단적경쟁열풍으로 16 만 1 800m³의 토량을 처리 해야 하는 8.8km의 인입수 로보수공사와 4개소의 어려 운 용배수로보수공사를 짧은 기간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 하였다.

재령군의 일군들과 농업근 기계수단을 총동원하여 계획 된 물길공사를 본때있게 다그 쳐 자기들이 맡은 물길보수공 사를 기한전에 끝냈다.

옹진물길대보수공사를 맡은 벽성, 강령, 옹진, 태탄군의 잍 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완강 한 공격정신으로 힘찬 전투를 벌려 150여리 구간의 방대 한 토량을 처리하고 물길대보 수과제수행에서 혁신을 일으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 위전에 한사람같이 펼쳐나선 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 자들은 450여리에 달하는 방대한 물길대보수공사를 열 <del>흘동</del>안에 끝냄으로써 1 O개 게 지을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 에서는 공사에 앞서 수만개의 우물을 파고 수천개의 굴포를 만들었으며 저류지와 하천보 막이공사를 비롯한 물확보전 투를 적극 벌려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황해남도 일군들과 당원들 로자들은 실정에 맞게 로력과 과 근로자들은 이번 공사를 통 하여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떨쳐나 결사관철 하고야마는 투쟁본때를 남김 없이 보여주었다.

특파기자 리승철

#### 원 0 전 G 고 조

근 로 각 八 당 원 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생전 의 념원인 부강한 조국을 하 루빨리 건설할 불타는 애국심 을 간직한 각지 당원들과 근 로자들이 강철전선을 계속 힘 있게 지원하고있다.

뜻깊은 2월에만도 전국적 으로 많은 시, 군들과 단위들 에서 계획보다 많은 량의 파 철을 금속공장들에 보내주어 사회적으로 강철전선지원열의 가 한층 고조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나라나야 합니다.» 도별로 분석해보면 평양시, 함경남도, 남포시, 황해남도, 자강도, 함경북도, 황해북도에 서 파철모으기를 힘있게 벌려 맡겨진 2월계획을 넘쳐 수행 하였다.

많은 시, 군, 공장, 기업소들 에서는 파철원천이 부족한 조 건에서도 혁신적인 안목과 일 본새를 가지고 낡고 못쓰게 된 설비를 대담하게 페기하는 사 업을 진행하는 한편 내부예비 를 적극적으로 탐구동원하여 많은 량의 파철을 모아 금속공 장들에 보내주었다.

중구역, 동흥산구역, 락원 군, 대안구역, 신천군, 신원군, 경흥군, 린산군, 사리원시, 신 의주시, 선천군, 혜산제약공장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을 비롯한 많은 구역, 군들과 여러 단위들에서 2월에 파철 모으기계획을 150%이상으

로 넘쳐 수행하였다. 특히 신천군, 신원군에서는 2월에 1.4분기계획을 수행

2월에 강철전선지원열기 가 그 어느때보다 고조된것은 일군들부터가 산모범을 보여 주며 대중을 발동해나간데

평양시, 함경남도, 남포시, 함경북도의 많은 일군들은 직 접 팔을 걷어붙이고 대중과 함 께 파철원천탐구에 나섰으며 현지에서 집중수송을 책임적 으로 조직지휘하였다.

역, 모란봉구역, 선교구역, 락 랑구역, 서성구역, 대동강구 역, 북청군, 천리마구역, 부령 군, 온성군, 포항구역, 경성군 을 비롯한 많은 구역, 군들에 서 계획보다 많은 량의 파철 을 모아 강철생산자들에게 보 내주었다.

성,중앙기관의 정무원들도 그 어느때보다 많은 량의 파철

을 모아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에 보내주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경공업성, 도시경영성, 유원지 총국, 외무성, 무역은행, 국가 자원개발성, 외국문출판사, 문 화성, 조선혁명박물관의 정무 원들이 많은 량의 파철을 모 아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

보내주었다. 개천철도국, 함흥철도국, 청 그리하여 대성구역, 평천구 진철도국의 수송전사들도 나라 의 전력조건이 어려운 속에서도 모아놓은 파철을 제때에 수송하 여 증산투쟁으로 들끓는 금속공

장들의 숨결을 높여주었다.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날로 높아가는 애국열의에 떠 받들려 금속공장들에서는 강 철증산열풍이 세차게 몰아치

본사기자 리철옥



반들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 평 양 3 2 6 전 선 공 장 에 서 -

본사기자 정 순 애 찍음

## 干重引从

## 성 교 양 , 김 정 일 애 국 주 의 교 양 , 신념교 화 2: 도 덕 교 양 에

# 수령결사용위의 전위투사로 키우는 위대성교양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최근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 에 이바지하는 좋은 일들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전개하며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5대교양 에서 기본을 위대성교양에 두고 여기에 선전선동의 화력을 총 집중하는 원칙을 내세웠다.

여기서 시당위원회가 틀어쥔 고리는 선전선동력량을 강화하 고 수단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였다.

우선 선전선동력량문제를 보자.

시에는 시당위원회일군들과 구역, 군당위원회일군들은 물론 교양, 강연, 선동망에 망라된 당 초급선전일군들을 비롯하여 막 강한 선전선동력량이 있다.

그러나 시당위원회 책임일군 들은 선전선동력량에 대한 견해 를 새롭게 정립하였다.

모든 일군들이 다 정치사업을 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대로 시안의 당일군들,당 초급선전일군들, 근로단체일군 그 성과의 첫째가는 비결은

평 양 시 당 위 원 회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통한 위대성교양사 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여 대중 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킨데

평양시당위원회가 위대성교 양에서 틀어쥔 방법론은 크게 두가지라고 볼수 있다. 하나는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 원, 총집중하는것이고 다른 하 나는 교양방법을 끊임없이 혁신 하는것이다.

##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총집중

들은 물론 행정경제일군들도 정 치사업의 주력이라는 원칙을 내 세운것이다.

시당위원회는 모든 일군들이 정치사업의 기수, 주인이라는 관점을 바로세워주기 위한 된바 람을 일으켰다. 일군들의 기수 적역할문제가 중요하다고 본 시 당위원회에서는 시안의 당,행 정. 근로단체책임일군들이 정치 사업의 모범을 창조하도록 하고 그것을 일반화하였다.

이와 함께 당초급선전일군들 의 역할을 비상히 높이도록 하 는데 큰 힘을 넣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지난 1월에 진행된 선동원열성자회의 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통 한 위대성교양의 열풍을 일으키 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또한 선전 선동수단을 잘 갖추고 그를 적 극 활용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일군들의

여기서 특별히 주목을 돌린것 이 방송선전차를 통한 교양사업 이다.

지난해 시의 선전선동력량과 수단들을 평양시버섯공장을 비 롯한 주요전투장마다에 집중시 켜 사상전의 된바람을 일으킨 경험에 기초하여 시당위원회에 서는 올해에 방송선전차들의 음 향설비와 음향증폭식메가폰들 에 대한 전반적인 료해사업을 진행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 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웠다. 그

## 여러가지 형식과

시당위원회의 위대성교양사 업에서 주목되는것은 그 방법을 끊임없이 혁신하고있는것이다. 우선 위대성교양을 실천과 밀 접히 결합시켜 진행한것이다.

여기서 중시한것도 시당위원 회일군들의 기수적인 역할문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

건설장에 가보면 좋은 실례들이 시당책임일군들은 건설장에

농장건설장과 강냉이가공공장

불어살다싶이 하였다. 그들은 건설자들과 함께 일도 하고 건설장에서 걸린 문제도 제 때에 풀어주면서 한평생 인민을 위해 험한 논두렁길을 걷고걸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인민의 아름 리하여 중구역, 서성구역, 보통 강구역, 락랑구역당위원회를 비 롯한 시안의 당조직들에서 방송 선전차를 리용하여 위대성교양 사업을 폭넓고 심도있게 진행함 으로써 절세위인들에 대한 충정

어번지게 하였다.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강화 하여 위대성교양의 포성을 더 욱 높이 울린것,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평양시가 당정책판 철의 기치를 제일먼저 추켜들고 전국의 앞장에서 달리게 된 비 결의 하나가 있다.

의 열도가 용암마냥 세차게 끓

## 방법으로

다운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 주시려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통한 교양사 업을 실감있게 진행하고있다.

격식과 틀이 없이 진행되고있 는 시당책임일군들의 위대성 교양사업은 건설장에 새로운 평 양정신, 평양속도창조열풍이 세 차게 몰아치게 하고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전 개되고있는 각급 당조직들의 위대성교양도 주목할만 하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평양

326전선공장, 평양곡산공장 을 비롯하여 시안의 령도업적단 위 일군들은 위대성교양을 실천 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고있 다.그리하여 당원들과 근로자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 을 대고조실천으로 빛내여갈 신념과 의지를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에 한사람 같이 떨쳐나서게 하고있다.

퓓

U

Œ

시당위원회에서는 답사와 참 판을 통한 위대성교양사업에도 큰 힘을 넣어 대고조실천에서 그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도 록 하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 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 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 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시당위원회에서는 올해에 시당 위원회일군들과 시안의 각급 기 판 일군들, 혁명가유자녀들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를 조직하였다. 또한 만경대혁명 사적관과 김일성종합대학 혁명 사적판, 장산혁명사적지를 비롯 한 혁명사적관,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참판사업과 혁명사적교양 실, 연혁소개실을 통한 교양사 업도 잘 짜고들었다.

이렇듯 시안의 선전선동력량 과 수단을 총발동하여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있는 시당위원회의 위대성교양사업 은 절세위인들을 주체의 태양으 로 높이 모시고 사는 수도의 일 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결사용위의 전위투사, 사상 과 신념의 강자, 평양정신, 평양 속도창조자들로 키우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채 인 철

#### 청 암 구 역 당 위 원 회 에 서 청 진 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두산혁명전적지를 현지지도하신 격동적인 소식에 접했을 때 구역 당책임일군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 리지 말라》, 이 뜻깊은 구호문헌을 접하는 순간 그들의 뇌

리를 치는것이 있었던것

이다. 청암지구는 구호문 헌이 많은 지역이다. 현 재 발굴보존되여있는 구 호문헌만 하여도 180 여점이나 된다. 그것을 잘 리용하면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신념교양을 강화하는데서 실효가 클 것이라고 보았다.

경 애 하 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 \_\_\_\_\_ 였다.

《죽어도 살아도 내 《국어노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 여 만난을 해치며 싸 워 승리한 항일혁명선 렬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오늘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 ➡ 마다에 그대로 맥박쳐 야 합니다.》

구호문헌을 통한 신념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 기에 앞서 구역당책임일군들은 구호문헌보존교양실을 돌아보 았다.

《모두다 백두산으로 가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승리 의 그날 우리 기어이 오리라》,

《검은구름 가셔지고 밝은 날 꼭 온다》, 《광복된 땅에서 춤추며 노래부를 그날은 멀지 않다》… 항일혁명선렬들의 넋이 고동

치는 구호문헌들이야말로 신념 으로 지켜지고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의 력사를 말해주는 증견자 이며 전세대들이 피로써 아로새 겨 후대들에게 넘겨준 고귀한 신념의 교과서였다.

현지에서 열린 협의회에서는 구호문헌보존교양실을 혁명교 양, 신념교양의 거점답게 더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참신하게 하기 위한 대책들이 토의되였다.

구역당위원회에서는 구호 문헌들을 영구보존하는 사업을 혁명의 1세대들의 혁명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중대한 사업으 로 보고 위원회적인 힘을 집중 하였다.

구호문헌들이 습기에 의한 피 해를 받지 않도록 랭온풍기를 비롯한 설비들도 충분히 갖추어 주고 건물의 지붕을 교체하는 사업도 진행하여 구호문헌을 영 구보존할수 있는 물질적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었다.

구역당위원회에서는 구호 문헌을 통한 신념교양을 참신하 게 벌리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 들었다.

강사들의 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월 2차에 걸쳐 강의합 평을 조직하도록 하고 구역당책 임일군이 직접 그 과정을 지도 하였다.강사들이 오래전의 강 의안을 그대로 리용하는 편향을 극복하고 매 시기 제시되는 당 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하여 강의

안의 내용을 부단히 보충하도록 하였다. 특히 투사들의 혁명적 신념을 보여주는 구호문헌들에 대한 해설을 당시의 시대적배경 과 현정세의 요구를 잘 반영하 여 인식교양적의의가 있게 진행 하도록 하였다.

구역당위원회에서는 구역안 의 모든 단위들에서 구호문헌보 존교양실에 대한 참판사업을 자 주 조직하도록 하는 한편 결의 모임, 이야기모임 등을 통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실천투쟁속에서 혁명적신념을 더욱 억세게 벼리도록 하기 위 하여 대고조전투장들에서 구호 문헌해설강의를 화선식으로 진 행하도록 하였다.

얼마전 구역당위원회의 작전 에 따라 진행된 이동강의는 당 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직하협동농장,청암협동농 장, 식료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 위들에 나간 강사들은 항일혁명 투사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 를 보여주는 구호문헌들에 대한 해설선전을 시와 노래를 배합하 여 특색있게 진행하였다.

강의의 실효는 실천에서 뚜렷 이 나타났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 리 혁명의 만년재보인 구호문헌 들을 신념의 교과서로 삼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도 록 하기 위한 구역당위원회의 착신하고 실속있는 사상교양사 업은 본받을만 하다.

본사기자 김 순 영



## 반제계급교양의 도수를 높여

반제계급교양을 여러가지 형식 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계급의식 을 높여주고있다.

당조직에서는 계급교양거점 을 잘 꾸려놓고 갱,직장단위로 원 2차이상 참<del>판</del>사업을 진행하 여 종업원들이 미제와 계급적원 쑤들의 야수성과 악랄성, 교활 성을 뼈에 새기도록 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는 선동원들을

흑령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 잘 준비시키고 그들이 종업원들 속에서 반제계급교양을 강도높 이 진행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 얼마전 초급당위원회는 선동 원들로 수산리계급교양관에 대 한 참판을 조직하였다. 지난 조 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시기 수사리에서 감행한 미 제침략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의 치떨리는 살인만행에 대한 해설 을 들으면서 선동원들은 미제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라는것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미제침략자 들이야말로 인간살륙을 도락으 로 삼는 식인종이며 살인마라는 것을 더욱 똑똑히 알고 승냥이 미제를 천백배로 복수할 결의를 다지면서 돌아온 그들은 종업원 들속에서 반제계급교양의 도수 를 더욱 높여나갔다.

초급당위원회는 조성된 정세 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 자들에 대한 반제계급교양을 더 욱 심화시켜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김 춘 석

# બ

## 일어나 백번 진정한 혁명가이다.》 사람이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언에는 혁명위 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굳 게 믿고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으로 끝까 지 싸워나가는데 혁명가의 참모습이 있 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혁명의 길은 간고하고 어렵다. 피어린 사선의 언덕도 넘어야 하고 무수한 시련 의 고비도 헤쳐나가야 하는것이 혁명이 다. 혁명의 길에서는 모진 굶주림과 추위도 겪을수 있고 자기의 피와 살, 목 숨까지도 바칠수 있다. 바로 이 길에서 열백번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혁명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나가는것이 혁명가의 본태이다.

백절불굴,이것은 혁명가의 투철한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고향을 떠나기에 앞서 남기신 시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는 몸 이 찢겨 가루가 되여도 대를 이어가며 굴함없이 싸워 삼천리금수강산에 기어이 독립의 새봄을 가져오려는 굳은 맹세가 담겨져있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수령이 령도하는 정의로운 위업에

한몸바칠 결심을 품고 나선 혁명가는 부 서져도 빛을 잃지 않는 백옥처럼 뼈가 부서져 가루가 될지언정 자기의 신념을 잃지 말아야 하고 눈속에 파묻혀도 푸름 이 변하지 않는 소나무처럼 철창속에서 일생을 마칠지언정 자기의 신념을 버리 지 말아야 하며 불에 타도 곧음을 굽히 지 않는 참대처럼 불에 타죽을지언정 기의 신념을 굽히지 말아야 한다.

우리 혁명의 1세들인 항일투사들은

참된 혁명가의 전형이다. 령하 40℃ 를 오르내리는 모진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내고 악착하게 달려드는 적들과 피 어린 결전을 벌리면서도 항일혁명투사 들은 절대로 주저앉거나 물러서는 일이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가려는것이 그들의 철석같 은 신념이였다. 항일혁명투사 최희숙동 지는 적들에게 두눈을 잃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쳐 놈들을 전률케 하였으며 마동희동지는 자기의 혀를 끊 어 사령부의 비밀을 끝까지 지키고 장 렬하게 최후를 마치였다. 백절불굴의 의지야말로 혁명가의 존엄을 지키고 삶 을 빛내여주는 초석이다.

불굴의 의지가 없다면 혁명가로서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마저도 지킬 수 없게 된다. 리종락이나 림수산은 혁 명에 참가한 년조도 오랬고 직위도 높았 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 처하자 인차 변절하였다. 력사적경험은 신념과 의지 가 강하지 못하면 간고한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갈수 없으며 혁명의 배신자로 굴 러떨어지고만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우리 혁명은 의연히 엄중한 도 전과 온갖 시련속에서 전진하고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 공격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아보려고 비렬한 제재와 고립압살책동을 더욱 광란적으로 벌리 고있다.

혁명의 길이 아무리 간고하다고 하여 도 우리에게는 물러서거나 에돌아가는 일이 추호도 있을수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장구한 력사적투쟁속에서 우리 의 사상과 위업의 정당성과 불패성을 뼈에 새기였으며 부닥치는 애로와 난판 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 과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

하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백두 산지구 혁명전적지와 마두산혁명전적지 를 비롯한 혁명전통교양거점들을 찾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군인들과 청소년들 의 발걸음은 끊기지 않고있다.이것은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오고 천만대적 이 달려든다고 하여도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가려는 천만군민의 억척불

변의 의지의 과시이다.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 동구호에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 족을 위하여!》라는 구호들이 제시되 여있다. 여기에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백두에서 창조된 혁명신념, 혁명투지, 혁명배짱을 만장약한 견결한 혁명가들 로 키우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 깃 들어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을 고귀한 지침으 로 삼고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백절불굴의 혁명가로서의 빛나는 삶을 수놓아야 할것이다.

조 학 철

### 서로 돕고 이끄 는 고상한 도덕기 풍이 공기처럼 차

교시하시였다.

흐르는 내 조국의 현실을 대할 때 마다 나에게는 도덕에 대한 의미 가 새삼스럽게 갈마들군 한다.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량심과 의리는 인간의 고유한 미덕이며 사람들을 자각적이고 아름다운 행동에 로 추동하는 정신적힘의 원 천입니다.》

인간의 발생과 더불어 생겨나 고 사회생활속에서 발전하여온 도덕은 사람의 인격적가치와 사 회의 모습을 규정하는 기본징표 의 하나로 되여왔다.

하기에 력사를 돌이켜보고 세계를 둘러볼수록 도덕이 인간과 사회발전에 어떤 영향 을 주는가를 더욱더 절감하게 되는것이다.

나의 머리속에서는 인간의 참 된 도덕륜리에 칼질을 하며 뗘 벌이던 이전 미국대통령 레간의 궤변이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가 인정하는 유일한 도 덕성은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하 는것이다. 그 목표실현을 위해 서는 그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 며 사람들을 속이는것도 서슴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이란자가 이런 날강도 적인 도덕관을 가지였으니 그가 떠드는 도덕의 세계, 문명의 세 계란 과연 어떤것인가를 구태여 론할 여지가 있겠는가.

몇푼의 딸라를 위해 자식이 부모를 칼로 찔러죽이는것도 서 슴지 않고 교정의 선생이 학생 을 구타하여 숨지게 하고도 《인 간도덕》을 줴쳐대는 미국사회, 백주에 흑인청년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도 법적책임은 고사하고 도덕적책임도 지지 않아 세인을 경악케 한 불법무도한 세계가 바로 미국사회인것이다.

이런 패륜패덕의 사회를 《인 권》과 《륜리도덕》의 표본이라 요 란스럽게 떠들어대고있으니 이것 이야말로 인륜도덕에 대한 모독 과 우롱의 극치가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썩어빠진 자본주의사회의 도덕의 실태 하다면 인류가 갈망하는 진정

한 도덕의 리상향은 과연 어디 에 있는것인가. 참다운 도덕은 오직 숭교한 사상과 고결한 정신, 순결한 량

심의 토양우에서 피여나는 아름

다운 꽃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도덕의리의 최고정화로 간직하 고 혁명동지들과 집단을 위하여 피와 살 지어 목숨까지도 서슴 없이 바치는것을 행복으로, 도덕 의리로 여기는것, 가정생활과 사 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존중과 믿음, 사랑으로 충만된 고상한 도덕기풍이 생활화, 체질화된 것, 이것이 바로 수령의 숭고한 인민적풍모를 삶과 투쟁의 귀감

으로 삼고 자라난 우리 인민의 고상한 도덕륜리의 참모습이다. 우리 나라에 왔던 외국의 한 인사가 자기의 방문록에 남긴 글이 떠오른다.

《상상도 못할 일이다. 남을 위 해서 피를 바치고 꽃다운 청춘 시절을 바치고 지어는 목숨까지 도 바치는 이런 인민, 참으로 이 상하다. 과연 이 나라에 남이라 는 말이 존재하는가. 내가 사는 사회에서는 꿈도 꿀수 없는 일 이 이 나라에서는 평범한 생활 로 되고있으니 조선이야말로 진 정한 인륜도덕의 어머니이다. 이 런 인민, 이런 사회를 놓고 인권 에 대해 떠들고있는 미국이 가

데제 공중비적들의 야수적만한

### 소롭기 짝이 없다. 이 지구상에 도 덕의 강국 사회주의 조선을 당할자 과연 있겠는가.》 세계의 량심은 공정한 심판판

누가 강자이고 약자인가는 도 덕을 가지고도 결정할수 있다.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이 땅 그 어디에 가보아도 수령흠모의 노래,동지애의 노래를 들을수 있고 사회주의도 덕의 따뜻한 공기를 호흡할수

그렇다. 도덕의 강자! 이것은 오직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정신도덕의 소유자들만이 지닐수 있는 값높은 부름이다. 윤 명 철

비제가투하면목단 60만t

#### 사상교양사업에서 실효성을 높이는 요인 의 하나는 그 계기를 잘 리용하 는데도 있다.

정방산종합식료공장 분초급 당위원회가 이 문제를 중시하고 방법론있게 풀어나감으로써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의 실효성 을 비상히 높이고있는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사업이나 근로단체사업

이 사람과의 사업이고 조국 과 인민을 위한 사업인것만 큼 그것은 마땅히 사람들의 애국심을 키우고 발양시키는 <sup>:</sup> 사업으로 되여야 합니다.»



## 정방산종합식료공장 분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공장당조직이 사상교양에서

리용할

계기문제를 중시하게 된데는 사 연이 있었다. 종업원들의 애국적열의를 한 껏 북돋아주기 위한 모임이 있

은 직후였다. 지배인 서인옥, 기사장 박철 응동무들과 함께 매 종업원들의 생산실적을 분석해보던 분초급 당비서 류순길동무의 생각은 깊

(교양사업은 같이 했는데 실 적에서는 왜 차이가 나는가.) 분초급당비서는 그 원인을 실적이 높지 못한 종업원들에 계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업에 서 찾아보았다. 분석해볼수록

는것이였다. 사실 사상교양사업을 많은 경 우 학습회, 강연회, 종업원모임 을 비롯한 몇개의 고정된 모임 계기들에서만 집중적으로 진행 해왔었다. 이것이 하나의 굳어 진 틀로 되여왔던것이다.

종업원들의 준비정도와 특성 은 서로 다르다. 그런데 한가지 처방으로 모든 사람을 《치료》하 할 급전 전 정으로 보는 기계 전 명백하지

> 이 일로 하여 심각한 교훈을 찾은 그는 사상교양사업의 실효 성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문제 를 연구하면서 사업을 혁신적으 로 전개해나갔다.

가능성은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계기는 주동적으로 성숙시켜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을 가슴깊이 새기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찾아쥔것이 사람 이 백이면 교양하는 계기도 백

이여야 한다는것이다. 실례들은 많다. 과자작업반의 로동자들속에

들어간 분초급당일군은 작업의 쉴참에 로동자들과 무릎을 마주 하였다. 생산과 관련한 문제로 부터 생활상의 문제에 이르기까 지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던 그는 공장에 대한 애착, 작업반 에 대한 애착문제를 자연스럽게 떠올렸다. 그리고 위대한 생애 의 마지막시기인 4년전 1월 몸소 공장을 찾으시였던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에 대한 감동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어떤 격동적인 호소는 없었지만 작업반원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한생에 자신들을 비추어보며 그들은 분발하여 일떠섰다.

쉴참을 계기로 리용하여 진 행한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의 실 효는 높은 생산실적으로 나타 났다.

지난해에 공장에서 롱구장과 배구장을 번듯하게 꾸리고 남새 온실을 일떠세우는 등 여러 대

상의 건설이 진행될 때에도 류순길, 로광식 그 과정에 분초급당비서는 동무들을 비롯한 분초급당위원 회 일군들은 그것을 뒤떨어진 종업원들을 교양하기 위한 좋은

계기로 삼았다. 공장에 대한 애착이 없이 생 활하여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 던 종업원들로 돌격대를 조직 하고 그들속에 들어가 조건과 정황에 맞게 교양사업을 들이 대였다. 건설과정에 그들은 공 장에 없어서는 안될 보배, 쟁쟁 한 혁신자들로 자라났다.

그뿐이 아니다. 때로는 종업원전체를 대상으 로, 때로는 작업반원들을 대상 으로 지어 세명이나 한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생산현장의

기대앞이나 출퇴근길에서도 교

양사업을 줄기차게 벌려나 갔다. 대상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 게, 전투의 정황과 조건에 맞게 계기를 주동적으로 마련하며 진행한 교양사업은 그대로 명중

포화력이 되여 김정일애국주의 교양에서 큰 실효를 안아왔다. 그러니 이 공장이 령도업적 단위로서의 위용을 과시하며 최근 몇해동안에 비약의 큰 자 욱을 내짚은 비결은 명백하지

않은가. 종업원이 백이면 교양사업의 계기도 백 📗

바로 이것이다. 본사기자 리정수

##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면 만사가 풀린다 장군님의

至 급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발단 4 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대중운동의 자랑찬 성과를 안고 1 0월의 대축전장에 들어서

려는 각지 당조직들의 투쟁이 전례없이 강화되고있다.

우리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초급당위원 회의 사업을 통해서도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이야말로 단위의 비약적발전의 강위력한 무기라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의 유훈을 강령적 지칩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 까지 관철하여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 장군님의 유훈은 곧

3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결의목표는 그 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사상을 보는 거울이다.

몇해전 공장 초급당비서로 사업하게 된 김향희동무는 단위의 3대혁명붉은기쟁 취운동실태를 료해하는 과정에 이 사업이 당의 의도에 맞게 응당한 수준에서 진행되 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느끼게 되였다.대중 운동에 대한 일군들의 판점도 바로서지 못했고 종업원들의 대중운동열의도 높지 못했다.이런 속에서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았다.

초급당비서는 그 원인을 일군들과 종업 원들속에 대중운동은 곧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인 사업이라 는 관점이 부족한데서 찾았다.

어버이장군님의 유훈판철과 대중운동을 별개의 사업처럼 여기는 관점은 대중운동 결의목표에서부터 집중적으로 나타났던것 이다.

결의목표가 판정을 위한 목표로 매우 실무 적으로 일정한 틀에 맞추어 세워져있었다.

기술혁명결의목표를 보아도 생산공정의 현대화실현을 위하여 어떤 기술혁신과제를 누가 언제까지 수행한다는 구체적인 내용 이 없이 방향적으로만 제기하고있었다.

무엇이 빠졌는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대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우리 식으로 높 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 혁신내용이 없었다. 실례로 많은 자금을 들 여 다른 나라에서 사오군 하는 자동조사기 의 어느 한 조종장치를 우리 식으로 만들어 야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할수 있는데 그런 내용은 밝혀져있지 않았다.

문화혁명결의목표도 마찬가지였다. 생산 문화, 생활문화의 본보기가 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판철하자면 문화회판과 정양소개건보수, 현대적인 수영관건설 등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다.

이것은 결의목표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로 일관되지 못하고 매우 실무적 으로, 형식적으로 세워져있다는것을 보여주 고있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존함을 모신 이 공장은 최근년간 소문없이 많은 일을 해놓았다. 과반이 녀성들이라고 볼 때 더더욱 놀랍기 그지없다. 공장을 돌아보고 종업원들을 만나보면 예가 바로 녀성로동 계급의 별세상이로구나 하는 격찬이 절로 터져나온다. 그야말로 천지개벽이다.

졇

그 비결을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한 목소리로 말하군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면 만사가 풀린다!

이것은 그들이 체험속에서, 실천속에서 찾은 답이였다.

우리는 대중운동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전으로 전환시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한 이곳 초급당위원회사업의 일단을 아래에 전한다.

## 대중운동결의목표

모든 사업의 첫걸음은 목표수립이다. 목 표를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 성패가 좌우

문제를 이렇게 본 초급당비서는 대중운 동결의목표가 판정을 위한 실무적인 목표가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결사관철 하기 위한 사 결의목표로 되게 하는것으로 부터 자기 사업의 첫걸음을 내짚었다.

초급당위원회는 결의목표수립과정을 대 중운동에 대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관점 을 바로잡아주는 좋은 계기로 전환시켰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 는가를 보자.

초급당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이 자 대중운동결의목표라는 인식을 바로가지 도록 하기 위한 사상공세의 된바람을 일으

우선 결의목표수립에 앞서 공장적인 항일유격대식문답식학습경연을 조직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지교시와 자기

부문에 주신 유훈, 당정책을 내용으로 하는 문답식학습경연을 당세포별로도 하고 근로 단체조직별로도 하였으며 작업반별로도 하 고 직장별로도 하였다.

광

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지교시와 자기 부문의 유훈을 자자구구 새기고 실천과 결부하여 결의도 다지는 문답 식학습경연을 통하여 장군님의 유훈이자 결의목표라는 옳은 인식을 가지게 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이런 성과에 토대하여 결의목표수립을 대중적인 사업으로 전환시 켜나갔다.

몇몇 책임일군들이 모여앉아 결의목표를 세우던 지난 시기의 낡은 틀을 깨고 이 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 시킨것은 좋은 결실을 가져왔다.

초급당위원회는 우선 모든 일군들과 종업 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조항한조 항 따져가며 빠진것이 없이 개인결의목표를 잘 세우도록 한 다음 그에 기초하여 작업 반. 직장결의목표를 세우도록 하였으며 그 모든것을 종합하여 공장적인 결의목표를 수 립하도록 하였다. 말하자면 우에서 아래로 흐르던 결의목표수립방식으로부터 아래에서 우에로 오르는 방식으로 전환시킨것이다.

이렇게 되니 대중운동결의목표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내용들로 일관 되고 구체성과 과학성, 현실성과 전망성이 철저히 보장된 산 결의목표로 되였다.

결의목표수립과정에 얻은 소득은 컸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장군님의 유훈관철 이 곧 대중운동이라는 관점을 바로가지게 되였고 대중의 열의가 비상히 높아져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게 되였으 며 첫걸음부터 신심드높이, 큼직이 내짚게 되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이 그대로 반영된 리상적인 대중운동결의목표를 세운것, 이것 이 바로 초급당위원회사업의 첫번째 경험 이다.

#### 함께 기관차를 몰아야 비약한다

대중운동결의목표실현에서 초급당위원회 가 중시한 문제는 일군들의 기수적인 역할 문제이다.

지난 시기 이 문제에서 편향이 있었다. 그것은 일부 행정경제일군들이 대중운동 은 마치 당일군들의 몫으로만 여기며 매우 피동적으로 대하고있었던것이다. 말하자면 대중운동의 기관차에 당일군들만이 타고있 는셈이였다.

이것은 대중운동의 전진속도를 보장할수 없게 하였다. 천리마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렸던 훌륭한 전통이 있는 공장이 오 랜 기간 제자리걸음을 하며 앉아뭉개고있 는것은 응당한 귀결이였다.

초급당일군은 이 문제해결의 열쇠를 대 중운동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 는데서 찾았다. 다시말하여 초급당일군들의 몫으로부터 초급당위원들의 몫으로 만들자

는것이다. 초급당위원들인 지배인, 기사장을 비롯한 행정경제일군들에 대한 초급당일군의 믿음 은 컸다.

지배인 김명환동무를 놓고보아도 일욕심 이 많은 불같은 정열가이고 빈틈없는 작전 가이며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보고야마 는 완강한 실천가였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이라면 벽도 문이라고 내미는 대단한 배짱가였다. 기사장 최혁동무는 또 어떤가. 그 역시 생산설비의 현대화와 대중 적기술혁신운동에서 막히는데가 없는 실력 가였고 정열가였다. 그들만이 아니라 행정 일군들모두가 하나와 같이 쟁쟁한 실력가

이런 지휘성원들이 대중운동에 뛰여든다 면 상상밖의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초급당위원회는 위원들이 대중운동결의 목표수행에서 나서는 큼직큼직한 일감들을 한몫씩 맡아 해제끼도록 분공조직을 하고 총화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웠다.

실례로 지배인에게는 생산을 비롯한 공 장의 전반사업을 책임지면서도 가장 힘든

문제로 나섰던 문화회관과 정양소개건보수 공사, 수영관건설을, 기사장에게는 생산공 정의 현대화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자동 조사기의 조종장치제작을 비롯한 여러건의 기술혁신과제를 맡겨주는 등 분공조직사업 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위

당

别

刻

지배인의 분공집행정형만 보아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 대한 립장과 자세를 잘 알수 있다.

당적분공이 곧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판철이라는 정치적자각을 안은 지배인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한몸 을 내대고 낮과 밤이 따로없는 전투를 벌렸 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최상의 수준에 서 관철하기 위해 설계도 여러번 고치고 투 자도 아끼지 않으며 완강하게 내밀어 문화 회판과 정양소, 수영판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완공한 지배인의 결사관철의 정신과 본때는 모든 일군들에게 좋은 영향 을 주었다.

분공수행과정에 행정책임일군들의 대중 운동에 대한 관점이 새로와졌다. 그와 함께 대중운동을 자기의 몫으로 여기는 기풍이 확립되게 되였다.

지배인, 기사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분공 을 수행하면 당조직에 찾아와 큼직한 일감, 어려운 일감을 또다시 당적분공으로 받아안고 대오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 렸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들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형상한 유화작품과 모자이크벽화를 정중히 모시는 사업,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개건 보수공사, 혁명사적교양실의 조명설치와 외 부벽체에 대한 인조석미장, 공공장소들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를 비롯한 당의 구호 와 표어 170여점, 직관선전판 130여 점 게시, 사적건물, 생산건물보수, 로동자합 숙, 탁아소, 유치원개건보수, 18층짜리 종업원살림집건설에서도 초급당위원들인 행정일군들이 한몫 단단히 하였다. 늘 전투 장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대중을 결의목표 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초급당위원 들의 기수적인 역할은 온 공장을 대중운동 의 불길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였다.

이렇듯 당, 행정, 기술책임일군들이 3위 1체가 되여 대오의 앞장에서 기관차를 몰 아나가니 그뒤를 일군들과 직장장들, 작업 반장들 아니 모든 종업원들이 따라나섰던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결의 목표실현의 불길속에서 현대적인 설비들을 자체의 힘으로 그쯘히 갖추고 생산정상화 의 동음을 세차게 울렸으며 최첨단돌파전 의 요구에 맞게 생산과 경영활동의 정보 화, 과학화수준을 높이였다. 그리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궐기기간 고치실모음기생산기지를 새로 꾸리고 자동 조사기온도수감부를 개발한것을 비롯하여 26건의 발명과 570여건의 새 기술 혁신안을 생산에 도입하였다. 뿐만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공장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통이 큰 일판을 벌려 공장안은 궁전처럼, 공장밖은 공원처럼 전변시켰다. 그 나날에 지배인은 로력영웅으로, 많은 종업원들이 선군시대공로자, 명예칭호,

업

국가수훈의 영예를 지니고 3대혁명붉은 기, 2중26호모범기대영예상, 선군봉화상 을 쟁취한 전투력있는 단위로 자랑떨치게

한마디로 공장은 최근 몇해동안에 10년, 20년 맞잡이로 비약하였다.

이것은 당. 행정일군들이 함께 기관차를 몰아야 대중운동이 최대급행으로 달릴수 있다는것을 실천적으로 확증해주고있다.

#### 사랑의 힘은 주인의 대부대를 낳는

习

결의목표실현의 성과적담보는 대중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초급당위원회는 이 문제를 사랑과 믿음 의 힘으로 풀어나갔다.

종업원들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 두 측면 에서 말할수 있다.

하나는 종업원들을 사상정신력의 강자, 인재로 키우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생활을 잘 돌보아주는것이다.

초급당위원회는 종업원들에 대한 사랑중 의 제일사랑은 그들을 수령결사옹위, 결사 판철의 투사, 녀성혁명가로 키우는것으로 보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실과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소개실을 비 롯한 교양장소들이 훌륭히 꾸려진데 맞게 그를 통한 5대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진행하였다.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실천과 밀 접히 결합하여 심도있게 진행하였다.

공장에 새로 들어오는 종업원들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곳곳을 참관하도록 하는 사업, 공장에 들어 온지 10년, 15년, 20년이 되는 종업원 들을 위한 축하모임조직 등 실효성있는 교 양방법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활용하였다.

그 과정에 종업원들의 사상정신적면모가 새로와지게 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또한 종업원들을 현대과

학기술과 높은 문화적소양을 지닌 인재로 키우는데도 응당한 관심을 돌리였다. 일하면서 배우는 기풍을 세워 누구나 높은 기술수준을 소유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하신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해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에 많은 품을 들이였다. 초급당위원회는 공장의 진정한 주인은 과학기술의 주인이 되여야 한다는 관점에

서 종업원들을 기술인재로 키우기 위한 학습조직과 지도를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학습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고 학습열의

를 높여주기 위한 보여주기사업도 진행하 여 온 공장에 학습열풍이 몰아치게 분위기 를 잘 조성하였다.

공장에 학위소유자들이 있고 수백명의 대학 및 전문학교졸업생들이 있다는것만 보 아도,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 현지 강의실을 내오고 여기서 한번에 수십명의 종업원들이 강의를 받게 하고있는 사실을 보아도 초급당위원회가 기술인재육성사업에 얼마나 큰 힘을 넣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초급당위원회는 또한 모든 종업원들이 시인이 되고 예술가가 되며 체육인이 될데

대한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온 공장에 시창

작열풍, 예술소조열풍, 체육열풍을 일으켰다. 그 과정에 시작품집 《사랑의 비단실》, 《우 리 마음 비단실에 담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추모작품집 《12월의 맹세》,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 기념작품집 《영원한 태양의 노래》등을 내놓아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였으며

단위로 자랑떨치게 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종업원들의 생활을 향상 시키는데도 응당한 관심을 돌리였다.

예술소조활동과 대중체육활동에서 앞장선

모든 일군들이 생산수자를 보기 전에 종업원들의 얼굴빛을 먼저 보며 멸사복무 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였다.

자체의 튼튼한 후방기지를 꾸려 거기에 서 생산한 돼지고기를 비롯한 후방물자를 종업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로동자 합숙을 잘 꾸리고 합숙생들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돌보아주었으며 한달에 수십명씩 정양생활을 하게 하고 수영관을 비롯한 편의봉사시설을 잘 건설하여 윤택 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내에 목란, 수삼나무, 은 빛종비나무, 오동나무, 자귀나무, 전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60여종에 6만여그 루의 나무와 1만여㎡의 새 품종의 잔디를 심어 수림화, 원림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 함으로써 훌륭한 문화정서생활환경을 마련 해주었다.

실로 종업원들을 위해 바쳐온 당조직의 이런 웅심깊은 사랑은 그들을 선군혁명 투사로, 녀성혁명가로 억세게 키운 훌륭한 밑거름이였으며 공장의 비약적발전의 위력 한 추동력이였다.

사랑의 힘으로 주인의 대부대를 키운것. 이것이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된 초급당 위원회의 위력한 당사업방식이였다.

공장이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투사들 의 대부대로, 혁신자대부대로 전투적위력을 높이 떨치며 생산과 건설에서 기적적인 전변의 새 력사를 안아온 이 모든 성과는 이곳 당조직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대중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린데 근본비결이 있다.

《우리 장군님의 유훈대로 하면 만사가 풀리고 만복이 차례집니다.》

이것은 얼마전 2중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는 영예를 지닌 공장일군들과 로동 자들속에서 울려나온 한결같은 심장의 목소리이다.

그렇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대중운동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면 만사가 풀린다. 이것은 절대불변의 진리이다.

본사기자 김 영 철 본사기자 장철 범

# 애국의 신념에 과학기술을 더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

#### 일 군 들 의 청 천 강 화 력 발 전 소

이 수입병을 없애고 자체의 힘 과 기술로 원료, 자재의 국산화 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실속 있게 벌려 알찬 열매들을 거두

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 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당 에서 내세운 전형단위들을 따 라배워 자기 면모를 일신하도 록 하여야 합니다.》

수입병은 자력갱생의 주되는 걸림돌이다.하지만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것이 한두가지가 아닌 조건에서 이 병을 뿌리뺀 다는것이 말처럼 그리 쉬운 일 은 아니다.

하다면 청천강화력발전소의 일 군들은 수입병에 어떤 처방을 내 리고 어떻게 극복해가고있는가.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을 만능 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자기 단 위에서 생산하거나 능히 마련할

청천강화력발전소의 일군들 여 값비싼 수입자재를 대용하기 위한 기술혁신에 주되는 힘을

> 일군들은 수입병을 없애기 위한 기술혁신목표를 하나 세 워도 발전소의 현실에 든든히 발을 붙이고 전력증산에 실지 이바지할수 있는것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고 있다.

작과정을 들수 있다. 이곳 발전 소에서는 다른 단위들에 비해 발전설비들이 습기의 영향을 많 이 받는것으로 하여 절연물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 지난 시 기 자체로 절연천제작공정을 꾸 려놓았다고는 하지만 절연물질 의 용매로는 의연히 원유에서 나오는 값비싼 수입자재를 쓰고 있는것으로 하여 그 덕을 못 보

일군들은 공업시험소 소장 한 철학동무가 창안한대로 증류수 에 기초한 새로운 용매리용방법 을 완성하는데서부터 수입병을 없애는 돌파구를 열것을 결심하 수 있는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 였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도리

머리를 저었고 다른 단위에서 넣고있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 절연천제

고야말았다.

원화이다.

만드는 용매를 대용해도 되지 않겠는가고 하였지만 이들은 동 요하지 않았다. 특히 거듭되는 실패로 기술

자들이 주저앉을세라 일군들이 필요한 설비와 시약, 최신과학 기술성과자료들을 제때에 보장 해주면서 끝까지 믿어주고 성 공에로 떠밀어주었다. 일군들의 확고한 주견과 적극적인 방조 에서 큰 힘을 얻은 공업시험소 기술자들은 오랜 기간의 고심 어린 탐구와 피타는 노력을 기 울여 새로운 기술을 완성해내

지금 이곳 발전소에서는 증류 수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값비 싼 수입용매를 대신하면서도 종 전보다 질좋은 절연천을 생산함 으로써 수백대에 달하는 설비들 의 정비보수과제를 제때에 원만 히 해제끼고있다.

이곳 일군들의 처방은 여기에 만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재자

이 땅의 모든것을 살점처럼 귀중히 여기고 열과 정을 쏟아

부으면 능히 사회주의재부로 만 들수 있다. 이곳 일군들과 기술 자들은 우리의것을 더욱 빛내이 려는 애국헌신의 기풍을 지니고 공업페기물, 페설물을 재자원화 하기 위한 투쟁도 실속있게 벌

리고있다.

도 없다.

공

전동기수리과정에 나오는 페 설물을 놓고보자.지난 시기에 는 잘게 부스러진 이 절연물들 을 쓸모없는것으로 치고 소각해 버리였다. 이를 대신하여 고압 및 저압전동기들의 수리정비에 값비싼 새 자재들이 쓰인것은 물론이고 소각과정에 유해물질 들이 방출되여 환경에 좋지 못

한 영향을 준것은 두말할 필요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밑에 소장 한철학동무와 신동준, 전현명, 김철호동무를 비롯한 공업시험소일군들과 기 술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분쇄 및 성형설비를 갖추어놓 고 이 페설물을 합리적으로 재 가공하여 필요한 절연물을 마 음먹은대로 만들어낼수 있게

발전소에서는 초급당비서 김창일동무의 발기에 따라 소석 회와 진흙을 연재와 함께 섞고 첨가제를 배합하여 년간 수십만 장의 블로크를 찍어낼수 있는 생산공정을 일뗘세움으로써 막 대한 량의 연재를 모두 재자원 화할수 있는 밝은 전망도 열어 놓았다. 정녕 찾으면 찾을수록 방도가 나오고 애국의 심장으로 보면 볼수록 모든것이 소중한

보물이였다. 그렇다. 우리의것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시 련과 난관이 있어도 패배주의의 한숨소리가 나올수 없고 모자라 는것, 부족되는것은 있어도 수 입병이 생길수 없다.

애국의 신념에 과학기술의 위 력을 더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 는 철리를 심장깊이 쪼아박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와 공업페 설물의 재자원화를 실현하기 위 한 투쟁을 통하여 수입병을 대 담하게 털어버리고있는 청천강 화력발전소 일군들의 사업경험 은 매우 교훈적이다.

> 본사기자 정 순 성 근로자들은 이르는 곳마

다에 굴포와 우물을 파고

러 농장들에서는 군급기관,기 업소일군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물이 있을수 있는 곳들을 찾아

한다. 사람같이 떨쳐나선 군의 일군들 과 근로자들은 지금 지하저수지 건설과 미진된 일부 물확보시설 보수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 치고있다.

특파기자 박동석



이바지할 일념안고 온실남새생산을 늘여간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본사기자 리 진 명 찍음

## 과학화실현에서 나서는 문제(5)

여야 한다. 토양소독은 여름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국도처에 마련해놓은 축산기지와 양어기지, 온실과 버섯생산기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덕을 보 게 하여야 합니다.》

온실남새생산을 과학화하여 생산을 늘이자면 병해충예방구 제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온실에서는 겨울철에도 땅이 얼지 않으며 공기습도가 높고 년중 남새를 계속 재배하기때문 에 병과 해충이 많이 발생할수 있다. 그러므로 종자싹틔우기, 모기르기, 토양관리, 영양관리, 수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영농 공정에서 병해충의 피해로 인한 수확고감소를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병 해충발생근원을 철저히 차단하 는것과 함께 온실안의 습도를 낮추며 작물을 튼튼히 키워야

무엇보다 종자, 모판흙, 소농기 구, 온실밖에서 들어오는 남새모 를 통하여 각종 병해충들이 전염 되지 않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종자와 모판흙소독을 철저히 하며 토양소독을 주기적으로 하

에 석회질소를 정보당 2t정도 뿌리고 밭갈이한 다음 물을 대 고 온실을 밀폐하여 온실온도를 50℃이상으로 올려 한주일간 소독하는 방법으로 할수 있다. 또한 토양박막을 씌워 병발생

을 억제하여야 한다. 토양박막 을 씌우면 토양으로부터의 물기 날기를 막아 온실안의 습도를 낮출수 있으며 물주기회수를 줄 여 물을 절약할수 있다. 뿐만아 니라 겨울철에 물주기로 하여 토양온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막 고 뿌리발육을 촉진할수 있다.

0.6%보르도액이나 만코제 브 600~800배액을 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한주일간격 으로 정상적으로 뿌려주면 병에 의한 피해를 막을수 있다.

일단 병해충이 발생하면 감별 을 정확히 하는것 역시 중요하 다. 균병,세균병,비루스병의 피해를 잘 갈라보며 비루스병과 먼지진드기의 피해, 잎곰팽이병 과 재색곰팽이병, 역병과 청고 병, 연부병과 로균병 등 혼동하 기 쉬운 병충해를 정확히 감별 하고 구제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무작정 화학농약을 사용

하지 말아야 하며 농업기술적방

법과 물리적방법, 생물학적방법

을 적극 배합하여야 한다. 농약분무는 될수록 맑은 날 오전에 하여야 하며 농약의 희 석배수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병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침투이 행성농약을 5~7일간격으로 3~4회 뿌려준다. 진디물이나 먼지진드기, 듯무지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해당한 살충, 살진드 기제를 3~5일간격으로 2~3 회 뿌려 첫번째 농약분무에서 죽이지 못한 알로부터 까나온 새끼벌레들이 엄지가 되여 다시

알을 낳기 전에 죽여야 한다. 튼튼한 모기르기, 충분한 영 양원소공급, 순치기, 필요한 잎 수를 제외한 나머지아래잎따주 기, 열매솎음과 같은 포기관리, 온실안의 습도를 낮추기 위한 환경관리는 병해충예방구제를

위한 최상의 방도이다. 온실남새를 재배하는 모든 부 문, 모든 단위에서는 병해충예 방구제사업에서 나서는 과학기 술적문제들을 잘 알고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품들여 마련해놓 은 생산기지들이 실지로 은을

내게 해야 할것이다.

평양남새과학연구소 부원 박진국

홍원군 일군들과 근로 자들이 물확보사업에 한 사람같이 펼쳐나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군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서골천콩크리트보막 이를 비롯한 수백개의 물확보시 설들을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보 수하기 위한 공사를 통이 크게 내밀어 기본적으로 끝내는 성과

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 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 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 으로 늘이는것입니다. »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협 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군의 전반적인 물확보시설들을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보수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일군들과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주상일동무를 비롯한 책임일 군들은 물확보전투지휘부를 내 오고 물원천탐구와 확보사업계 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데 기초 하여 군적으로 수백개의 물확 보시설을 새로 건설하거나 보 수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

군일군들은 수천정보의 논밭 에 필요한 물량을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그 량을 확보하기 위 하여 새로 건설해야 할 대상과 개건보수해야 할 대상들을 지역 별로 따져보고 짧은 기간에 와 닥닥 해제끼기로 하였다. 일군 들은 력량을 집중하여 군적으로 들은 합리적인 공법들을 받아들

원 군 진행해야 할 대상과 해당 협동 농장들에서 자체로 할수 있는 대상들을 바로 정하고 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었다.

군에서는 먼저 군적인 력량을 집중하여 서골천보막이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일군들은 함경 남도농업설계부문 일군들과 협 의하여 설계를 앞세우고 로력과 자재, 기계화수단보장, 시공조 직을 짜고들면서 공사를 밀고나 갔다. 가물막이공사와 기초굴 착,길이가 260여m나 되는 보콩크리트치기, 1 0개의 수문 설치공사, 물길굴공사 등 방대 한 공사였지만 리명일, 김영일 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근로자

6개월이 걸려야 한다던 공사를 8개월동안에 끝내는 성과를 이 룩하였다. 여기서 신심을 얻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런이어 다른 대상의 물확보시설공사들에 달라붙 그리하여 20여개에 달하는 동골천계단식보막이공사를 비 롯하여 군적으로 50여개의 하 천보막이공사를 진행하여 많은

개의 집수암거들도 개건보수하 지난해왕가물때의 피해현상

И 이면서 공격전을 들이대여 1년 화, 남산협동농장을 비롯한 여

물을 잡을수 있게 되였다. 이와 함께 18개의 저수지들과 수십

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군들과

졸짱을 박는데도 력량을 집중하였다. 덕흥,삼성,룡덕,봉

내여 물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을 줄기차게 내밀었다. 그리하 여 군적으로 400여개의 굴포 와 우물을 파고 500여개의 졸짱을 새로 박는 성과를 거두 뜻깊은 올해를 알곡증산성과 로 빛내일 불같은 열의밑에 한

원 수 님 의 현 지 말 씀 관 철 떨 쳐 나 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공장, 안팎으로 흠 잡을데가 없는 만점짜리 공장이 라고 높이 평가하신 원산구두공장. 동해의 항구도시에 자리잡은 그리 크지 않은 이 경공업공장으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반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 우리가 바로 만복의 주인공들입니다

공장구내의 앞마당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 종업원들의 사상교양을 위한 또 하나의 거점이 훌륭히 마련되였 다고, 누구나 하루일을 이곳을 먼저 찾는것으로 시작한다고 이

야기하였다.

처럼 우리 인민, 우리 로동계급을 위하여 주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이 곳곳마다에서 뜨겁게 살아맥박치는 그야말로 하나의 로동자궁전이다. 우리는 참관자들속에 섞여 공장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는것

을 돌아보며 위대한 그 사랑과 믿음속에 태여난 이곳 일터의 천지개벽에 대하여, 하늘같은 그 은덕을 뼈와 살에 새기고 증 산투쟁에 떨쳐나선 이곳 로동계 급의 애국충정에 대하여 페부로 절감하게 되였다.

공장에 깃든 위대한 장군님과

공장의 천지개벽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을 감격에 겨워 전하는 일군의 목소리는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자욱을 따라 생산현장

사출작업반 현장이였다. 바닥에는 풀색의 에폭시수지

로 처리한 생산현장은 마치 현 대화된 식료공장을 방불케 하 였다. 기대들앞에서 남성로동자 들이 일하고있었는데 다같이 《원산구두공장》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파란 작업복을 입고있 었다.

작업복색갈과 형태가 현장 분위기에 잘 어울린다는 우리의 이야기에 동행한 일군은 거기에 도 우리 당의 사랑이 뜨겁게 깃들 어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당에서는 현대화된 일터에 맞 게 로동자들의 작업복과 모자에 이르기까지 그 색갈과 형태들을 하나하나 정해주고 한날한시에 이렇게 안겨주었던것이다. 그는 남성로동자들과는 달리 녀성로 동자들의 작업복은 하늘색인데 그 어느 작업장에 들어가보아도 작업복이 바닥색갈, 천정색갈과 잘 어울려 정말 기분이 상쾌하

인조석으로가 아니라 에폭시 수지칠감으로 처리한 작업현장 의 풀색바닥도 눈길을 끌었지만 천정의 루바창이 특색있었다. 이렇게 천정을 루바창으로 처리

하니 현장온도를 보장하는 랭온 풍판들과 유해공기를 뽑는 배풍 관들을 옆벽체에 따로 설치하지 않고 천정의 루바창우에 배치할 수 있었다. 지난날에는 생각지 도 못했던 이런 궁전같은 일터 에서 일하니 아무리 일해도 힘든줄을 모르겠다는 작업반장 김충성동무의 이야기를 뒤에 남 기고 우리는 갑피직장으로 취재 길을 이어갔다.

절반이상의 로력이 가정부인인 이곳 직장 녀성들이 터뜨리는 행복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더욱 뭉클하게 하였다.

한창 재봉기앞에 앉아 작업에 여념없던 직장장 강원희동무는 당의 사랑속에 마련된 구두갑피 생산을 전문하는 현대적인 재봉 기들을 다루며 녀성로동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기 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한창 설비자랑을 늘어놓던 그는 우리를 어느 한 작업반휴계실로 안내하였다.

뜨뜻한 온돌바닥마냥 온기도 는 휴계실에는 새 탈의함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었다.

마침 휴식참이 되여 이곳에 들 어서던 작업반원들이 이구동성 으로 터치는 휴계실자랑에 우리 의 마음도 흥그러워졌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처럼 훌륭 한 로동조건과 생활환경을 평범 한 근로녀성들에게 통채로 마련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을 터뜨리는 직장 장의 눈가에는 어느새 이슬이 맺혀있었다.

로동자궁전에 넘치는 따사로 운 사랑, 그속에서 만복을 누려 가는 주인공들의 행복넘친 목소 리를 우리는 2층에 있는 제화 직장에서도 들을수 있었다.

현지지도의 그날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작업장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들에 게 먼저 인사를 보내주시였다며 1 작업반의 윤광선동무는 말하 였다.

《우리 구두공장로동계급의 감사의 인사를 받으셔야 하실분은 다름아닌 우리 원수님이 아니십 니까. 그런데 뜻깊은 광명성절을 앞두고 우리들을 위한 성대한 연회까지 차려주실줄은 정말 꿈

지난날에는 추운 겨울이면 현장의 온도가 내려가 솜옷과 모자까지 쓰고 일을 했는데 이 제는 우리 당의 사랑이 어린 작 업복을 산뜻하게 차려입고 이처 훈훈한 생산현장에서 일을 한다고, 매일, 매 순간 그 사랑 이 고마와 일을 하고해도 힘든줄 모른다는 그의 격정넘친 이야기 였다.

새로 일떠선 문화후생시설의 식당에서 우리와 만난 김순렬동 무는 바로 이 자리에서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공장로동계 급을 위한 연회가 진행되였다며

에도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 《매봉산》, 그 이름 우리 당이 안겨준 로동자궁전, 원산구두공장의 일터마다에서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애국 충정의 불길, 보답의 증산열의가 활화산처럼 타오르고있다. 우리와 만난 지배인 장승호동

무는 공장제품상표인 《매봉산》에 깃든 사랑의 이야기를 가슴뜨겁게 들려주었다. 이 공장 신발제품의 상표는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동명산》 이였다.

지난해 7월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품의 질을 높이자면 상표도안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이곳에서 샛 산하고있는 신발의 상표를 우리 군대와 인민의 높은 기개와 승리를 상징하는 《매봉산》으로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매봉산》, 그 이름만 불러보 아도 가슴은 긍지로 부풀고 질 높은 우리의 제품, 우리의것을 우리 인민에게 당당히 안겨줄 애국의 각오를 만장약해주는 뜻깊은 상표도안이였다.

공장책임일군들은 《매봉산》 상표를 단 공장제품을 최상의 수준에서 개발완성하는 사업을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의 중심고리로 틀어쥐였다.

지난해 개건공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는것과 동시에 30여명 공장기술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을 망라하는 연구개발 력량이 무어졌다.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쳐 신발창설계를 현대적추세

관리해온데 이어 매일과 같이

대학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주변관리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생활화하고있는 김일성종합

대학 재정대학 3학년 학생

리단심은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

학생들에 대한 위대성교양사업

그때의 감격과 기쁨에 대하여 흥분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부모들과 친척들 그리고 군사복무를 하는 자식들과 형제 들까지 전화와 편지로 축하의 인사를 끊임없이 보내오고있습 니다. 지난 2월의 명절들에는 돗. 인민반의 집집에서 우리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로동자 궁전의 자랑을 듣자고 공장로동자 들을 서로 초청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당이 안겨준 로동자궁전 에서 만복을 누리는 공장로동계 급의 자랑과 긍지를 생동하게 느낄수 있게 하는 이야기였다.

## 온 나라에 떨치리 와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근본

적으로 개선하고 불리한 조건에 서도 시제품생산을 적극 다그쳐 나갔다. 지난 1월말 현대적으로 꾸려

진 공장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동안 공장일군 들과 로동계급이 우리의 원료, 우리의 자재에 의거하여 각계층 인민들의 요구와 기호에 맞는 수십종의 질좋은 구두들을 개발 한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 시고 몸소 녀자구두의 무게도 계량해보시며 당에서 정해준것 보다 더 가볍다고 평가도 해주 시였다.

영광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 의 평가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공장일군들은 마음속으로 충정의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경애하는 원수님, 원수님께서 직접 달아주신 〈매봉산〉상표가 온 나라를 뒤덮게 하겠습니다.》 그날의 현지지도이후 온 공장은 새 제품개발열의로 부글부글

끓고있다. 새롭게 조직된 새 제품개발조 성원들이 그 앞장에 섰다.

최명옥실장을 비롯한 기술지 들은 당의 사랑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콤퓨터를 리용하여 1 0 여종의 신발도안들에 대한 3차원설계를 짧은 기간에 완성 하였다.

박금혁, 김남철, 김남혁동무들 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창작전투 속에 서로의 지혜를 합쳐 맵시있 는 갖가지 신발들을 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주변

관리사업에 깨끗한 마음을 바쳐

이밖에 은하지도국 부원 김동명.

대성구역 룡흥초급중학교 3학년

학생 김광훈, 룡흥소학교 4 학년

학생들인 함진향, 김록송, 한혜경,

금성거리소학교 4 학년 학생들인

가고있다.

그런가하면 지난 시기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여러종의 구두를 창안제작한 갑피직장 직장장 강원희동무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이후 짧은 기간에 중년 녀성들속에서 호평을 받는 4종의

새 제품을 또다시 개발하였다. 공장일군들은 지금 당의 은정 속에 마련된 과학기술지식보급 실을 거점으로 하여 로동계급을 과학기술인재화하기 위한 사업을 단계별목표밑에 힘있게 내밀고 있다. 벌써 10여명의 로동자 들이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 대학에 입학하였으며 이제 얼마 안있어 또 수십명의 종업원들이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원격교 육망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고 한다. 매주마다 진행되는 기술 학습의 날이 종업원들에게 산 지식을 주는 실속있는 과정으로 지향되는 속에 누구나 배움의 열망에 부풀고있다.

얼마전 갑피직장의 처녀혁신자 손금성동무는 박동무가 일하는 새 제품개발현장을 찾아갔다.

공장청년동맹초급일군들인것 으로 하여 가까운 사이였지만 밤이 깊어 찾아온 처녀를 대하며 박동 무는 한순간 어리둥절해하였다. 《박동무, 오늘부터 매일밤 나 에게 3차원설계를 시간을 내서

배워주세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훌륭한 로동조건과 생산환경 이 있고 과학기술지식보급실을 비롯한 곳곳에 현대적인 콤퓨터 들이 마련되여있는데 이제는 누 구나 마음만 먹으면 과학기술인 재가 될수 있고 새 제품개발에

이바지할수 있다는 신심과 배짱에

넘쳐있는것이다. 우리에게 로동자궁전을 통채로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에는 오직 보답의 직선주로만 있을뿐이다.이런 충정의 각오를 만장약하고 한사 람같이 떨쳐나선 이곳 원산구두 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헌신적 투쟁으로 하여 뜻깊은 《매봉산》 상표가 온 나라 인민에게 기쁨 을 더해주고 우리모두의 사랑을 받게 될 그날은 하루하루 다가오 고있는것이다.

글 본사기자 리병춘 사진 본사기자 신충 혁

운 충정을 바쳐가고있는 사람들 속에는 조선인민내무군 군판 윤 경식을 비롯한 일군들과 평양시 인민보안국 군판 안수일을 비롯 한 일군들, 북창은하피복공장 지배인 김광수도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초급당 일군인 석철수, 철학부 교원 리금 옥,력학부 4 학년 학생 장광성 물리학부 4 학년 학생 신주성, 평양외국어대학 학생 리수련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에 뜨거운 지성을 바치였다.

####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 사적을 전하는 표식비내용을 한 표식비가 정중히 건립되여있다. 그앞에서 만난 공장초급당비서 전명화동무는 이번에 혁명사적 건물로 향하였다. 표식비가 새롭게 건립됨으로써

자한자 새기며 우리는 기본생산 모든 건물들이 척 보기에도 마음이 흥그러워지는 미색과 흰 색의 타일들로 산뜻하게 단장되 여있었다.

동행한 일군은 5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일어난 전변을 놓고

공장의 기본생산건물과 사무 실청사, 보조청사들은 다 종전 건물들을 전면적으로 개건한것 이다. 새로 건설한 건물은 구내 측면에 있는 2층짜리 문화후생 시설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난해 7월 공장을 찾아오 시였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며칠후 강력한 건설력량을 보내주신데 이어 매 건물과 구 내마당, 휴식터의 형성안들을 일일이 지도해주시며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외형에서부터 오늘과 같은 만점짜리 공장이 새롭게 태여날수 있었다.

저도모르게 젖어들었다.

으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우리가 먼저 들어선 곳은 1층

칠감을 바르고 천정은 루바창으

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합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 하고 끝없이 빛내녀나가이 합니다. 》

김일성종합대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사업에 많은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깨끗한 충정을 바치고 있다.

량강도림업관리국 당책임 일군은 2012년 11월 많은 눈치기도구를 마련해가지고 김일성종합대학에 찾아가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는 사업에 리용해달라고 절절히 부탁하였다.

평양화초연구소 부원 최금혁을 비롯한 8명의 청년동맹원들은 2013년 10월부터 매일파

같이 김일성종합대학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주변관리사업을 진행하는것을 생활화하고있다. 모란봉구역 전승1동 초급녀

맹위원장 최현숙을 비롯한 동안 의 녀맹원들과 평양외국어대학 영어학부 4 학년 3 반 학생들은

# 불라는 충정, 숭고한 도덕의리심의 발현

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더 잘 모셔달라고 하면 서 많은 관리도구들을 보내주

었다.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지난 3년동안 매일과 같이 6 학년 학생 김진효는 지난해 김일성종합대학에 모신 위대한 1 0월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가정에서 마련한 150여점의 관리도구 들을 넘겨주었다.

어린시절부터 평양학생소년 궁전 정면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주변을 정성껏

### 더 밝고 정중히 모시기 위한 지난해 12월 김일성종합대학 에 리용해달라고 하면서 휴대용 최진희, 김수향, 같은 학교 3학년 무선마이크와 증폭기 10조, 관리도구 수백점을 넘겨주었다. 대성구역 5월13일룡남고

급중학교 3학년 학생 김지예는 수령님들의 동상에 정중히 인사 를 드리고 주변관리사업을 진행 하고있다.

한껏

대성구역 룡흥초급중학교 2학년 학생 리현정과 그의 동생인 룡흥소학교 2학년 학생 리현제도 두해전 10월부터 

학생 오금룡, 붉은별소학교 4 학 년 학생 최정인을 비롯한 많은 기판,기업소,학교일군들과 교직원, 청소년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수령님들의 동상주변관리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 바쳐가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에 모신 위대한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을 숭고한 도덕의리로 여기고 뜨거

넘쳐나는 립체률동영화관

### 이밖에 김일성종합대학 력학 부 초급당일군인 안영숙, 생명 과학부 연구사들인 김철성, 한경애,정양소 소장 리만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병원 의사 김금주를 비롯한 많 은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기 위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더 밝고 사업에 불타는 충정을 바쳐가고

본사기자 현경철

# 세계교에에술의 최고경지에 올라선 조선의 공중교에

2015년 3월 9일부터 11일까지 리수용 조선 토의하였으며 호상 관심사로 되는 지역 및 국제

제8차 이쥅스크국제교예축전에서 우리 나라 체력교예 《정복자들》에 축정최고상과 기술상 수여

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로씨 야의 우드무르찌야공화국에서 진행되였다.

이번 축전에는 우리 나라와 도이췰란드. 로씨야, 스위스, 카 나다, 프랑스, 윁남, 에스빠냐 등 20여개 나라에서 온 170여 명의 이름있는 교예배우들이 참가 하였다.

체력교예 《정복자들》을 가지고 축전에 참가한 우리 배우들은 여러 가지 난도높은 동작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심사성원들과 축전참 가자들, 이쥅스크시민들을 매혹 시켰으며 그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와 절찬을 받았다.

우리 배우들이 하늘을 나는듯 이 공중에 황홀한 기교동작들을 펼쳐보일 때마다 관람석에서는 요란한 환성과 열광적인 박수갈 하기 바란다.

제 8차 이쥅스크국제교예축전 채가 터져나왔다. 축전심사성원들은 한결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벨라루씨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이 벨라루씨공화국을

방문기간 리수용외무상은 아.웨.꼬뱌꼬브

벨라루씨공화국 정부수상과 웨. 에스. 마쮸쉡스끼

제1부수상을 의례방문하고 웨. 웨. 마께이외무상,

웨. 에스. 체까노브무역상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의례방문과 회담과정에 쌍방은 조선과 벨라루씨

사이의 호혜적인 협조관계를 정치와 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더욱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들을

벨라루씨의 주요수출기업소들을 돌아보았다.

우리 교예배우들이 출연한 체력 교예 《정복자들》을 제일 우수한 작품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시상식에서 우리 배우들은

축전최고상인 금상과 우드무르 찌야공화국 정부의 명의로 된 축전기술상을 수여받았다. 축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의 공중교예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아슬아슬하면서도 장 쾌한 기교들로 이쥅스크시민들의 심장을 틀어잡았다.

나는 훌륭한 교예배우들을 축전에 보내준 귀국정부에 감사를 드리며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이 계속 교예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

몽뗴까를로국제교예축전조직 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쥅스크국 제교예축전 심사위원은 조선의 공중교예는 세계교예예술의 최 고경지에 올라섰다, 이번 축전 에서 조선의 배우들은 자기들의 높은 기교동작을 남김없이 보여 주었다, 앞으로 그들이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되는 교예축전 들에 참가하여 훌륭한 기교들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푼

싸바으 ス서과 벤리르씨시이의 기선저이며

적인 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가려는 의지를 재확인

하였으며 경제분야를 포함하여 쌍무협조관계를

적극 확대해나갈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쌍방은 내정불간섭과 자주권존중,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유엔 등 국제무대들에서 호상협력

2015년 3월 12일

민 스 크

을 더욱 긴밀히 해나가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축전심사위원인 벨라루씨의 드지바교예단 지배인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선교예를 보면서 사회주의

교육체계가 얼마나 우월한가를 다시한번 느끼게 된다. 사회주의 조선이 훌륭한 기교를 가진 교예 배우들을 더 많이 키워내며 국제 교예축전무대들에서 좋은 성과 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특명전권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받들고

산림복구전투에 떨쳐나선 조선

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 진행한 나무

심기가 조선을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하는데 이바지하기 바란

다고 말하였다.

#### 조선과 윁남사이의 외교관계설정 65돐에 즈음하여 나 무 심 기 및 친선모임 진 행

일군들과 팜 비엣 훙 주조 윁남

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그들은 과일나무들을 심은 다

음 두 나라사이의 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하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웰 남사회주의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65돐에 즈음하여 12일 주조 윁남대사관에서 나무심기 및 친선모임이 진행되 였다.

여기에는 박경일 조선웰남 친선협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수리아에서의 3월8일혁명 52돐에 즈음하여 따맘 쑬레이만 주조 수리아아랍공화국 특명전 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12일 조선수리아친선 중화군 중화고 급중학교를 참관하였다. 그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 사적이 깃들어있는 학교의 연혁을 들으면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다녀가신 교실을 비롯하여 여러 교육시설들을 돌아보았다.

이어 이곳 학생소년들의 예술

## 수 리 아 대 사 관 성 원 들 중화군 중화고급중학교 참관 소품공연이 있었다.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자기들의 희망과 재능을 활짝 꽃피우며 강성 국가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나는 이곳 학생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준 공연은 손님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특명전권대사는 참판을 통하여

조선의 교육과 문화발전수준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 이 학교가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이바지하기 바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선인민은 강성국가건설 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 이다고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우리는 당에 모든것을 의탁하고 당과 함께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쳐온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럽없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 후대사랑을 높이 받들고 평안북도와 황해

기쁨의 웃음소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북도에서 립체률동영화관을 훌륭히 일떠세우고 그 운영을 정상화 해나가고있다. 평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를 비롯한 로동당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마다에서 인민의 행복넘친 웃음소리가 높 이 울리고있는 때에 신의주시에 립체률동영화관이 독특한 건축 미를 자랑하며 일떠서 시민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 서는 인민의 즐거운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꾸려진 백운공원주변에 대중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인 립체률동영화관을 훌륭히 일뗘세 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각 도 들에 립체률동영화관을 현대적 인 미감이 나게 건설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영화관건설 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 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 후대사랑을 높이 받 들고 도당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에 신의주광장과 도예술극장이 자리잡고있는 백운공원주변의 명당자리에 근로자들과 청소년 <sup>|</sup> 학생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

에 지할수 있는 립체률동영화관을 건설할것을 결정하고 그 실현 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 들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인 민위원회에서는 능력있는 일군 들로 건설지휘부를 조직하고 강 력한 건설력량을 동원하는것과 함께 세멘트와 철근, 골재를 비 롯한 자재보장사업을 앞세우며 립체률동영화관건설을 힘있게 내밀었다.

건설을 맡은 평안북도 신의주 청년돌격대원들은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 후대사랑을 현실로 꽃피울 불같은 열의를 안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돌격전을 벌려 20일 남짓한 기간에 기초 굴착과 기초콩크리트타입공사 를 진행하고 벽체축조총공사의 9 0 %이상을 해제끼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청년돌격대원들은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구호를 높이 들고 건 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 장하면서 공사를 힘있게 내밀어 불과 5개월 남짓한 기간에 건 축공사를 전부 끝내고 립체률동

도당위원회에서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 후대사랑이 어려있는 립체률동영화관에 영 화상영시설들과 오락시설들을 갖추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 도록 하여 올해 양력설부터 립

영화관을 훌륭히 일떠세웠다.

하였다. 립체률동영화관은 총 4개의 립체률동영화관과 경마오락장, 쾌속정오락장, 전자사격장 등 9개 관으로 되여있다.

체률동영화상영을 시작하도록

이미 설비들이 갖추어진 4개의 립체률동영화관에서는 《우리를 기다리지 말라》,《바다에서의 즐거운 모험》,《격류속에서》등 많은 립체률동영화가 상영되고 있다.

지난 양력설부터 운영을 시작한

해 황해북도에 립체률동영화관이 새로 건설되여 운영을 시작하

도당위원회에서는 당의 인민 사랑, 후대사랑의 높은 뜻을 받들어 짧은 기간에 립체률동 영화관을 일떠세우기 위한 조직 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능력있고 경험있는 일군들로 건설지휘부를 조직하고 자재보 장대책을 미리미리 따라세우는 한편 건설일정계획을 현실조건 에 맞게 빈틈없이 세우도록 하

였다.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을 자

립체률동영화관으로는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개별 적으로 혹은 기업소나 가족단위로 찾아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힘있는 노래선률에 맞추어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좌석에 앉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면들이 펼쳐질 때마다 관람자들은 탄성 을 터치면서 격동적인 순간들을 체험하였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 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당의 인민사랑, 후대사랑이 깃들어있는 립체률동영화관에 대한 운영을 잘 짜고들어 시민들 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할 결의에 넘쳐있다.

특파기자 송 창 윤

도 에 체로 해결할 높은 목표를 세우 고 세멘트공장의 생산을 정상화 하는 등 실무적대책들을 따라세

도와 건설지휘부일군들은 건설에 동원된 일군들과 건설자 들이 당의 은정이 깃든 립체률 동영화관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일뗘세우도록 조직 사업을 짜고들고 요구성을 높이

였다. 도시건설려단과 대외건설사업 소 일군들과 전투원들은 당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이 청소년학 생들과 인민들에게 하루라도 더

빨리 가닿도록 하기 위하여 불 리한 조건에서도 힘찬 전투를 벌

렸다. 이들은 앞선 공법을 도입하는 한편 공사기일을 앞당기고 건설 립체영화화면이 펼쳐지고 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가 지 합리화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건설속도를 부쩍 높였다.

자재보장을 맡은 사리원해운 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짧 은 기간에 수천t의 골재를 보장 하여야 하는 과제가 제기되였을 때 로력조직과 운수지휘를 짜고 들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

였다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 후대 사랑을 가슴뜨겁게 새겨안은 사 리원시의 수많은 주민들이 건설 전투를 적극 지원하였다.

사리원시안의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은 당의 후대사랑의 높은 뜻을 받드는데서 자기들이 응당 앞장서야 한다고 하면서 돌격대를 뭇고 건설전투를 힘껏

도와나섰다. 시안의 청년동맹조직들에서 도 조직사업을 잘하여 대학생들 을 비롯한 청년동맹원들로 야간 지원돌격대를 뭇고 공사 전기간 건설전투의 준비공정을 맡아 해 제끼였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운영 을 시작한 립체률동영화관으로는 지금 많은 청소년학생들과 인민 들이 찾아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 고있다.

특파기자 김 천 일

# 거족적인 반미성전의 불길을 지펴올려야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적인 선제타 격을 노린 《키 리졸브》, 《독수리》합 동군사연습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 는데 따라 그 위험성과 도발적성격은 더 욱 뚜렷이 드러나고있다. 남조선전역에 서 조선반도유사시 미제침략군무력의 신 속한 기동과 전방전개, 괴뢰군과의 련합 에 의한 불의적인 선제공격 등 화약내 짙은 불장난소동들이 련이어 벌어지고 있으며 거기에 싸이버전, 반공화국심리 전훈련까지 배합된것으로 하여 이번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 은 하나의 대규모적인 침략전쟁을 방불 케 하고있다. 호전광들은 지휘훈련놀음 을 언론에 공개하는것으로 도발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북침전쟁열에 들뜬 미국 과 괴뢰호전광들의 분별없는 망동은 조

없이 떠밀고있다. 얼마전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하여 전체 조선민족과 세계평화애 호인민들에게 미국과 괴뢰패당의 북침 핵전쟁연습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 기 위한 투쟁에 광범히 펼쳐나설것을 호 소한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지금이야말 로 전체 조선민족이 내외호전세력의 전 쟁도발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 때 이다.

선반도정세를 전쟁의 문어구에로 거침

북침핵전쟁연습책동을 반대하는 투쟁 에 온 겨레가 떨쳐나서는것은 나라의 평 화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사 활적과제이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는 미국의 극악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 과 전쟁불장난소동이 몰아온 필연적결 과이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의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 아시아대륙 의 판문인 우리 공화국을 노리면서 수 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이 《힘의 우위》에 기초한 군사적지배전략, 침략전략이라는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세계도처에서 합법적 인 주권국가들을 무력으로 짓밟고 패권 을 확립하는것이 미국의 상투적수법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은 미국의 대 조선지배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책동의 일환으로서 북침전쟁도발을 목적으로 하 고있다. 호전광들이 아무리 《년례적인 방어훈련》이니 뭐니 하고 목이 쉬게 광 고하여도 그것을 곧이 믿을 사람은 세상 에 없다.최근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북붕괴》 폭언을 늘어놓은것은 이번 불 장난소동의 침략적성격을 더욱 뚜렷이 부각시켜주고있다.

미국은 조선반도를 장악하기 위해 눈 섭 한오리 까딱하지 않고 우리 민족의 운명을 통채로 불도가니속에 몰아넣으 려 하고있다. 미국이 해마다 악명높은 북침핵전쟁연습들을 뻔질나게 벌리고있 는것은 우리 조국강토와 전체 조선민족 을 대조선지배전략실현의 제물로 삼으 려는 미국의 심보가 얼마나 흉악한가 하 는것을 여실히 폭로해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피뢰들은 미 국을 등에 업고 기고만장해서 동족대결 에 더욱 피를 물고 날뛰고있다. 침략과 전쟁이 날강도 미제의 존재방식이라면 그에 대한 무조건적인 굴종과 추종은 남 조선피뢰들의 체질화된 생존방식이다. 상전의 전쟁머슴군이 되여 제 죽을줄도 모르고 동족을 물어메치려고 피눈이 되 여 날뛰고있는 괴뢰패당의 어리석은 망 동이야말로 실로 격분을 자아내는 반역 적죄악이 아닐수 없다.

날로 엄중한 단계에 들어서고있는 미 국과 괴뢰호전광들의 범죄적인 침략전 쟁책동을 방관시한다면 조선반도에서 기 필코 핵전쟁이 터지게 되리라는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생각만 해도 몸서리 치는 재앙의 그림자가 민족의 머리우에 드리워지고있는 이 시각 이 땅에 태를 묻 은 조선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악랄한 핵전쟁책동을 저 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북침전쟁연습을 반대하는 투쟁에 온 겨레가 떨쳐나서는것은 북남대결의 근 원을 청산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 어나가기 위한 절박한 과제이다.

괴뢰호전광들은 이번 연습이 《년레 적인 방어훈련》이기때문에 북남관계 와 련계될수 없다고 강변하고있다. 하 지만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 사연습이 감히 《평양점령》과 우리 수뇌부를 노린 극악무도한 침략전쟁연 습이라는것은 이미 낱낱이 폭로되였 다. 이런 도발적인 전쟁연습이 북남관 계에 해를 주지 않는다고 떠벌이는것이 야말로 날강도들의 망동이 아닐수 없 다. 괴뢰들이 아무리 《방어훈련》의 간판을 내걸어도 북남판계와 조선반도 정세를 격화시키면서 그것을 구실로 북 침전쟁을 도발하려는 저들의 흉악한 기 도를 가리울수 없다.

북남관계개선과 전쟁연습은 절대로 량 립될수 없다. 하기에 우리는 남조선당국 이 미국과 함께 벌리는 무모한 전쟁연습 을 비롯한 모든 전쟁책동을 그만두고 동 족끼리 손잡고 북남판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할것을 호소한것이다. 하 지만 괴뢰당국은 우리의 진심어린 제안 을 한사코 뿌리치고 미국과 야합하여 대 규모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강 행해나섰다. 이로 하여 북남판계는 최악 의 위기에 빠지고있다.

돌이켜보면 우리 겨레 누구나가 통일 을 갈망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분 렬의 비극이 오늘까지 지속되고있는 주 되는 원인의 하나가 바로 미제와 남조선 호전광들이 도발적인 합동군사연습소동 으로 조선반도에 항시적인 전쟁위험을 조성하며 북남관계개선을 악랄하게 가 로막아왔기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남조 선괴뢰들은 우리 민족의 통일기운이 높아갈 때마다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책 동으로 그에 찬물을 끼얹었다.

올해만 보아도 그렇다. 남조선당국자 들에게 우리의 노력에 호응하여 진정으 로 북남관계를 개선할 생각이 있다면 미 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벌릴 리유가 없 다. 하지만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 한 나머지 합동군사연습의 포성을 터치 고야만 괴뢰호전광들의 분별없는 망동 은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를 여지없이 파 괴하였다.

북남관계는 안중에도 없이 외세와 야 합하여 동족을 무력으로 해치려고 피눈 이 되여 날뛰는 남조선괴뢰들의 반민족 적범죄행위를 우리 겨레는 추호도 묵과 할수 없다.

외세와 친미사대매국노들의 북침전 쟁도발책동이 계속되는 한 민족의 안전 도 지킬수 없고 북남관계개선도 이룩할 수 없다는것이 오늘의 현실이 주는 교 훈이다.

북남관계는 결코 침략자 미제와 그 주 구 괴뢰패당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의 롱 락물이 될수 없다. 이제 더이상 민족분 렬의 아픔속에 모대길수 없고 북남대결 의 력사를 지속시켜서는 안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북남관계를 파국 에로 몰아가는 미제와 남조선피뢰패당 의 북침전쟁연습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거족적인 애국성전에 한사람같이 궐기해나서야 한다.

온 겨레가 통일애국의 기치밑에 굳게 뭉쳐 과감한 투쟁을 벌린다면 그 어떤 침략자도 능히 물리칠수 있다.

조국통일의 함성이 삼천리를 진감할 최후승리의 그날은 멀지 않았다.

전체 조선민족은 위대한 선군의 기치 밑에 굳게 뭉쳐 내외호전광들의 무분별 한 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통 일의 력사적숙원을 성취하기 위한 애국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철 은 정 

탁월한 정치실력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을 승리에로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을 남조선 각계가 열렬

**겨** 히 칭송하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은 날마 다 변모되는 우리 공화 국의 눈부신 현실에 대 하여 《북의 사회전반에 혁신과 기적, 애국으로 **기** 혁신과 기적, 애국으로 점음이 차넘치게 된것은 김정은제 1 위원장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

《최고지도자로서의 0 실력을 남김없이 과 시》, 《북이 가까운 장 래에 부유하고 가장 문 명한 나라가 될것이 다.》 등으로 보도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뛰여난 령도력을 높이 격찬하고있다.

언론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공 화국의 이르는 곳마다에 서 기적과 위훈이 창조 되고 사회주의강성국가 의 체모가 갖추어지고있 다고 보도하였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

영소와 위성과학자주택 지구, 연풍과학자휴양 소,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평양애육 원과 평양육아원 등이 훌륭히 일뗘선것은 그 대표적실레이라 고 하면서 언론들은 우리 공화 국에서 문화, 보건, 체육을 비롯

변이 일어나고있다고 전하였다. 남조선의 한 상임연구원은 자기의 론문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은 무려

5 0 여만명이나 된다. 하루 또

는 몇개월정도 고용되여 일하며

얼마 안되는 임금을 받는 반실업

한 모든 분야에 걸쳐 세기적전

받드시여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시려는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썼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태양절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군대와 인민 이 나아가야 할 길을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이라 고 밝혀주시였다. 뿐만아니라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성국가라는 리론 을 내놓으시였다.》

부산의 한 정치인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 8 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혁명 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 당겨나갈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고 전체 군대와 인민을 그 실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 고계신다고 피력하였다.

서울의 한대학교수는 강의에서 《이북에서는 김정은최고령도자 의 깊은 관심과 령도에 의해 과 학발전을 위한 훌륭한 조건들이 마련되고있다. 》라고 말하면서 과학기술을 앞세워 최첨단돌파 전을 힘있게 벌리고 그에 기초 하여 경제강국의 목표를 달성함 으로써 사회주의 강성국가름 일뗘세우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라 고 강조하였다.

부산의 한 지식인은 북의 교 육방식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맞 추어 빠르게 발전하고있다고 하 면서 의무교육기간을 12년으 로 하는 법령이 채택되고 학생 들의 응용능력과 실천능력을 높 여주기 위한 설비들이 교육기관 들에 훌륭히 갖추어지고있다고 말하였다.인터네트홈페지 《동북아의 문》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선대수령들 의 경제로선을 계승하시여 경제

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올 결심을 피 력하시였다고 전하였으며 《통 일뉴스》와 《헤랄드경제》를 비롯한 여러 언론들도 북이 자 력갱생의 혁명방식과 계속혁 신.계속전진의 투쟁기풍으로 새로운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있 는것은 강성국가건설목표를 기어이 달성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투철한 의지와 탁월한 령도가 있기때문이라고 칭송하 였다.

남조선의 한 인터네트홈페지 에는 이런 글이 실렸다.

《세계는 미국을 자기 배짱대 로 다루면서 국방건설, 경제건 설을 힘있게 추진하시는 조선의 령도자의 정치실력을 알게 되였 다. 김정은시대의 미래를 확신 할수 있게 되였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언론인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해의 첫 아침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 으시여 원아들에게 친어버이의 사랑을 안겨주시였다는 소식에 접하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새해 첫 현지지도를 부모없 는 아이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제일 그리워할것이라고 마음쓰시며 육아원과 애육원을 찾으시는것으로 시작하신 김정은제 1 위원장님이시야말로 우리 겨레가 운명도 미래도 모두 맡기고 따라야 할 절세의 위인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적풍모에 접할수록 남조선인민들은 원수님의 위대한 품이야말로 온 겨레가 안겨살 영원한 사랑의 품이라고 하면서 그이의 따뜻한 품에 안겨 만복 을 누릴 조국통일의 그날을 고 대하고있다.

본사기자

대해 운운하고

### 임명놀음 《총리》

얼마전 부정부패와 과거 군 부독재 《정권》 시기의 경력으 로 하여 민심의 배격을 받던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리 완구에 대한 《총리임명동의 안》이 괴뢰국회에서 통과되였 다. 《새누리당》은 《총리임 명동의안》처리가 저들의 기도 대로 되게 하기 위해 해외출장 중인 의원들까지 모두 소환하

결국 《국회》의 과반수의석 을 차지하고있는 《새누리당》 은 가까스로 《총리임명동의 안》을 통과시키였다.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서 7개의 반 대표가 나왔다고 한다.리완구 의 《총리임명동의안》에 대한 찬성률은 52.6%로서 그는 《국회》의원절반만 찬성한 《반쪽짜리총리》로 되고

다. 이것은 당연하다. 이미 알려진바이지만 리완 구의 부정부패경력은 《국 회》인사청문회과정에 낱낱이 드러났다. 부동산투기의혹, 본 인 및 아들의 병역기피의혹, 교수특혜채용의혹, 론문표절의 혹, 재산신고축소의혹, 《삼청 교육대》 관련의혹 등 그의 부 정행위를 다 꼽자면 숨이 찰 정도이다. 오죽했으면 《부정 비리의혹 종합판》. 《완구백 화점》이라는 오명까지 얻었

겠는가. 리완구에 대한 민심의 부정적 견해는 특히 그의 파렴치한 언론 통제망동때문에 더욱 강해졌다.

지난 2월 10일에 있은 인 사청문회에서 한 야당의원은 리완구에게 기자들을 협박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지 않 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그런 일이 없다고 딱 잡아뗐 다. 그러나 방송으로 기자들을 협박하는 자기의 목소리가 울 려나오자 순간에 낯색이 달라 지며 《기억상태가 조금 정상 적이지 못하다.》,《3일째 잠을 자지 못해 착각했다.》고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도덕성보다 능력을 본다.》 는 해괴한 론리를 들고나오면서 리완구의 《총리임명》을 한사 코 고집하였다.

변명하였다.

그러니 남조선 각계가 어찌 비난의 목소리를 높 있겠는가.

남조선의 한 언론은 리완구의 《총리》임명놀음과 관련하여 《차라리 수감자중에서 〈총 리〉감을 찾는것이 좋을것이 다. 그를 〈총리〉 자리에 올려 놓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 리익만 채울것이다.》 라고 야유하였다.

리완구 《총리임명동의안》의 《국회》통과는 야당세력의 강 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새정치민주련합은 리완구 《총리》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 한 뒤 《〈새누리당〉은 표결에 서는 승리했지만 민중한테는 졌다.》고 평하였다.

새정치민주련합 대표는 《새누리당》은 다수의석의 힘으로 《임명동의안》을 통 과시켰지만 민중을 이길수는 없다, 민중이 반대하는 《총 리》후보자를 내세운 《새누 리당》과 집권자는 그에 대한 정치적책임을 지게 될것이라 고 주장하였다.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리완구 는 《〈국회〉에서의 검증은 물 론 민중으로부터 이미 부적격판 정을 받았다. 집권여당이 수적 우세로 〈임명동의안〉을 처리 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 다.》고 말하였다.

정의당 대변인은 론평을 통해 《민심에 역행하는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민중의 뜻이 이 미 확인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 지로 〈총리〉가 된 리완구는 출발부터 민중무시〈총리〉가 되였다. 〈국회〉인준은 되였다 고 하지만 민중인준은 받지 못 한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의 전국언론로조는 성 명을 발표하고 력대 《총리》 후보자들중 이렇게 도덕적으로 하고 짓밟는 이런 오만하고 독 부패한 사람은 없었다, 이런 사 람의 인준을 요청한 청와대는 물론이고 《총리》인준에 찬성 한 《국회》의원들의 처사에 분노를 넘어 불쌍함마저 느낀 다고 규탄하였다. 계속하여 로 빚어낸것으로서 결코 해소되지 조는 민중의 뜻과 정반대의 길

말로가 어뗘했는지를 민중은 똑똑히 기억하고있다고 하면서 리완구와 같이 부패한 인간이 공직에서 물러나는 날까지 투 쟁을 멈추지 않을 의지를 피력

남조선언론들도 현 《정권》

이 들어선이래 지금까지 두명의 《총리》후보자들이 부패경력 으로 하여 스스로 사퇴하는 모 습을 지켜본 인민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된 《총리》가 나오기를 바랐지만 또다시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있다고 하면서 결국 리완 구는 많은 빚을 지고 《총리》 자리에 올랐다고 보도하였다.

남조선집권자가 새로운 《총 리》후보로 《새누리당》의 원 내대표 리완구를 지명한것은 통 치위기를 수습하고 정국을 안정 목적으로부터 출발한것이 였다. 하지만 보다싶이 여야대 립과 갈등, 각계의 실망과 분노 만을 초래한 《총리》임명놀음 은 《정권》위기를 더욱 부채질 하는 꼴이 되고말았다. 이런것 을 놓고 혹을 뗴러 갔다가 혹불

인 격이라고 한다. 괴뢰집권세력이 민심을 외면 선적인 《인사정책》으로 과연 위기를 모면할수 있겠는가. 현 괴뢰당국의 통치위기는 인민들 의 머리우에 군림하여 독재정치 를 일삼는 그들의 반역적망동이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십 철 영

### 얼마전 울산 의 한 주민은 《설명절이라

도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기 쁨도 없다. 살아있는것이 고통 스럽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다.설명절에조차 생 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사람들 이 너무 많아 경찰은 미처 정 신을 차리지 못하고 돌아쳤다 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남조선인 민들을 이처럼 무리로 죽음의 벼랑턱에로 몰아가고있는가.

지난 《대통령》 선거당시 현 괴뢰집권자는 귀맛좋은 공약들 을 많이 늘어놓았다. 그 대다수 가 경제와 민생과 관련된것들이 였다. 그는 민심을 끌기 위해 그 무슨 《희망의 새시대》니. 《국민행복시대》니 하는 각종 《공약》들을 광고하며 돌아쳤

자기의 정치적야욕을 실현하 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였다는 것을 톡톡히 보여주고있다. 현 남조선집권자가 권력의 자 리에 올라앉은 지난 2년간 경 제는 더욱 엉망진창이 되고 인

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그것

민들의 불행과 고통도 한층 심 해졌다. 최근 남조선에서 커다란 물의 를 일으키고있는 실업문제만 놓 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현 보수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도 실업률은 끊임없이 상승하였

다.이로 하여 2013년에

350여만명이였던 실업자가

2014년에는 450여만명

으로 늘어났으며 그중 취업을

자도 800만명에서 1 000 만명으로 증가하였다. 더우기 심각한것은 청년실업 문제이다.

현 당국자가 집권당시 청년실

업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큰소리 를 쳤지만 그가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은 첫해인 2013년에 벌써 2 0대청년들의 취업률이 대폭 떨어졌다. 괴뢰통계청은 올해초 청년취업률이 관련통계 를 내기 시작한 1963년이후 5 0 여년만에 사상 최저를 기록 했으며 청년들의 《취업의 문》 은 더욱 좁아질것이라고 아우성 을 쳤다.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2 0대청년들의 일자리는 4 만 3 000여개, 30대청년들의 일자리는 2만 1 000여개나 줄어들었다. 남조선에서 청년실 업사태는 그야말로 최악의 지경 에 이르렀다.

남조선에서는 실업을 당한 수 많은 청년들이 비판과 절망속에 몸부림치고있다.

그 비참한 모습은 겹쳐드는 생활난으로 사랑, 결혼, 해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가 이제 는 집을 포기하고 인간관계까 지 포기하는 《5포세대》로 불리워지고있는데서도 잘 알수 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대로

황량한 무덤, 숨막히는 독재사회(2)

실업자로 되여버리는 20대청 년들의 처참한 현실을 놓고 얼 마전 남조선의 한 언론은 《빚 을 내여 비싼 등록금을 메꾸고

현실이 사회의 슬픈 모습》이라 고 개탄하였다.

남조선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 나고있는 어린이학대행위도 현 괴뢰집권자가 입버릇처럼 떠들 어대던 《국민행복시대》라는 것이 과연 어떤것인지 말해주고 있다.최근 남조선도처의 《어 린이집》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 나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폭행사 건들은 부모들은 물론 사회 각 계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졸업해야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얼마전 인천의 한 《어린이 집》에서는 원장과 직원들이 저 희들의 배를 불리울 목적으로 철부지 어린것들에게 오염된 음 식찌끼로 만든 죽을 먹이였는가 하면 어른들도 먹기 힘든 맵고 짠 음식들을 강제로 먹인 죄행 이 폭로되였다.

지금 남조선의 《어린이집》 이라는데서 벌어지는 학대행위 는 상상을 초월하고있다. 어린 아이들에게 기강을 세운다고 하 면서 생마늘과 고추를 먹이고 위생실에 가지 못하게 하거나 머리를 물탕크에 담그다 못해 성폭행을 가하고 지어 자루속에 넣어 산에 버리는 만행까지 벌 어지고있다.

이런 가슴아픈 현실에 대해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는 현 보 의 투쟁은 너무도 정당하다. 수당국이 《국민행복시대》에

있지만 정책에 는 아이들의 행 복이란 말조차 빠져있다고 한탄 하였다. 온갖 사회악이 범람하여 살

래야 더는 살수 없는 지옥의 세 상에서 인민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길이란 바로 잘못 만난 세 상을 저주하며 자살하는 길뿐

인것이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패당 의 달콤한 거짓말에 넘어가 현 집권자에게 지지표를 준것을 가 슴을 치며 통탄하고있다. 남조 선에서 매일과 같이 벌어지는 반《정부》투쟁에서는 《경제 파국과 민생파탄의 주범인 박근 혜는 책임지라.》,《이대로는 못살겠다.》. 《민중생존권 쟁 취하자.》 등의 분노에 찬 목소

리들이 터져나오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민주로총 과 로총은 현 《정부》의 로동 시장구조개악을 반대하는 결 의모임에서 박근혜의 집권 2 년은 공약파기, 민생파탄, 민주 화말살로 이어진 나날이였다 고 단죄하면서 수십만의 로동 자들을 전면파업에로 불러일 으키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하 였다.

반역통치를 짓부시기 위한 투 쟁이 없이는 초보적인 생존권 도, 인간의 존엄도 지킬수 없다 는것을 더욱 절감한 남조선인민 들은 보수패당의 악정에 항거하 여 분연히 일떠서고있다. 그들

라 영 국

### 괴뢰호전광들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 면 괴뢰호전광들이 10일 남조 선의 동해항에서 북침화학전연

습에 광분하였다.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의한 오염시 전쟁지속능력을

## 광란적인 화학전쟁연습에 광분

연습에 괴뢰해군 1함대, 륙군 수많은 전쟁장비들이 투입되

괴뢰호전광들은 화학무기에

관계기관들의 련합훈련에 열을

을 걸었던 과거 《정권》들의

반공화국대결에 화장한 괴뢰 호전광들은 북남관계개선과 조 국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지향에 찬물을 끼얹으며 북침전쟁연습 에 미쳐날뛰고있다.

#### 23사단 화학지원대 병력과 올렸다.

일환으로 벌어진 이번 군사 확보하기 위한 해군, 륙군, 미제와 미뢰호전광들 《쌍룡》 상륙작전훈련 획책

로 3월말부터 4월초까지 《쌍 룡》상륙작전훈련을 감행하려 하고있다. 수천명의 미제침략군과 괴뢰 군 해병대병력이 일본 사세보항

면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이 《독

용함선들과 함께 여기에 투입된 다고 한다. 이 불장난소동이 말그대로 우 바 있다.

에 있는 미해군 상륙수송함을

비롯한 3척의 미제침략군 상륙

####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 리의 해안지역을 차지하고 이를 교두보로 하여 우리 공화국의 전 수리》합동군사연습의 일환으 령토를 타고앉기 위한 위험한 선 제공격연습이라는것은 내외가 다 인정하고있는 사실이다. 2006년 《련합전시증원연

습》,《독수리》합동군사연습 때 괴뢰군부호전광들이 미제침 략군과 합동상륙훈련을 벌려놓 고 《평양을 직접 압박하고 고 립시키기 위해 상륙작전을 결정 하였다.》고 공공연히 떠벌인

이 불순한 목적을 띤 군사연 습이 감행되는것만으로도 불의 적인 선제공격과 우리의 수뇌부 《제거》,《평양점령》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북침핵전쟁소동 으로서의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성격을 잘 알수 있다.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위험한 실전행동으로 번져가고있는 미 제와 그에 편승한 괴뢰호전광들 의 발작적인 전쟁광증으로 조선 반도정세는 날로 험악한 위기일 발의 사태에로 치닫고있다.

#### 일본군성 문제해결 노 예

가 담겨져

위해 싸워

혔다.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 뉴스》에 의하면 대전 평화의 소녀상건립 시민추진위원회가 1일 대전에서 모임을 가지고 일 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주장하 였다.

천인공노할 성노예범죄를 고발 하는 소녀상이 대전에 세워진데 대해 언급하였다.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일본의

소녀상에는 전쟁과 폭력으로 인권이 짓밟힌 과거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며 과거죄

## 행에 대한 일본의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지

주 장 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성노예범죄에 대한 일본의 공식사점를 요구하는 집회

#### 독재부활에 환장이 된 《유신》 극악한

지난 《대통령》 선거전야인 2012년 11월 남조선의 어 느 한 박물판에는 현 집권자를 풍자한 만화가 전시되여 사람들 의 눈길을 끌었다.

만화는 《유신잔당》과 《수 구언론》이라는 점적을 단 박근 혜가 제가 낳은 아이를 보며 웃 고있는데 옆에 선 의사는 머리 에 장성별을 달고 색안경을 낀 아이가 신통히 박정희를 꼭 닮 은데 너무 놀라와 아이를 향해 거수경례를 하는것을 형상하였 다. 이것은 박근혜가 집권할 경 우 남조선에서 《유신》 파쑈독 재가 전면적으로 부활되게 될것 이라는 민심의 우려를 반영하것

남조선인민들의 불안과 우려 는 그대로 현실로 되고있다. 현 괴뢰정권의 구성과 통치방식만 놓고보아도 남조선에서 《유 신》 독재가 되살아나고있다는 것을 잘 알수 있다.

이였다.

현 집권자는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기 바쁘게 《유신》체제 를 그대로 본딴 1인독재체제를 구축하고 모든 대내외정책과 《대북정책》 까지 청와대가 직 접 좌우지하도록 하였다. 리명 박《정권》시기 유명무실한 기 구로 전략되였던 안전보장회의 를 청와대 안보실이 주도하도록 한것만 보아도 그렇다.

원래 안전보장회의제도는

《유신》 독재자의 집권시기인 전철을 그대로 밟고있다는것을 1963년에 나온것이다.

현 집권자는 외교와 안보, 통 일문제를 총괄하는 이 안전보장 회의제도를 부활시키고 그것을 청와대 안보실이 주도하게 함으 로써 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에 소속된 괴뢰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 판, 정보원 원장 등을 안전보장 회의 의장인 자기에게 철저히 종 속시키였다. 이것은 《유신》독

재통치의 전형적인 답습이다. 지금도 남조선인민들은 중앙 정보부라고 하면 《유신》독재 시기의 악몽이 되살아나 치를 떨고있다. 오늘의 괴뢰정보원이 바로 중앙정보부와 같은 무제 한한 권력을 휘두르며 비법적 인 정치개입과 사찰, 진보민주 세력에 대한 탄압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그것은 정보원을 한사코 두둔하고 극구 내세우 며 독재통치와 《정권》위기해 소에 써먹고있는 현 집권자의 파쑈적망동과 뗴여놓고 볼수

얼마전 괴뢰집권자는 정보원 원장을 하던 리병기를 청와대 비서실장자리에 올려앉히였다.

그가 다른 누구도 아닌 괴뢰 정보원 원장을 청와대 비서실 장으로 임명한것은 중앙정보부 에 의거하여 정보정치, 공포정 치를 일삼은 《유신》독재자의 말해준다.

남조선집권자는 권력기구까 지도 《유신》독재식으로 개편 하였다. 《유신》독재시기에 존 재하였던 수출진흥확대회의, 경 제장관회의같은것을 무역투자 진흥회의, 경제정책조정회의로 복구해놓은것이나 1964년 에 내온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직제를 이름만 바꾸어 경 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판 직제로 되살린것은 그 대표적 실례이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언론들과 정치분석가들은 《박 근혜가 구호로부터 〈국정운 영〉방식에 이르기까지 〈유 신〉독재시기의 통치방식을 그 대로 본따고있다.》,《박근혜

고 평하였다. 다리부러진 노루 한곬에 모 인다고 현 《정권》이 출현한 이후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은 자들은 신통히도 《유신》독재 의 손때묻은자들이거나 그 후

한테서 박정희의 DNA가 강하

게 나타나고있다.》,《제2의

〈유신〉시대》가 개막되였다

예들이다. 현 《정권》의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을 한 허태렬은 《유 신》독재시기 청와대 비서실에 서 근무한자로서 《박정희를 노죽을 부릴 정도로 철저한 있다고 하면서 이번에 통일부

《유신》잔당이다. 그 후임으로 올라앉은 김기춘은 악명높은 《유신헌법》 작성에 직접 참가 한자로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 국 부장,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유신》독재자의 심복부 하였다.

괴뢰행정부의 초대 경제부총 리 겸 기획재정부 장판이였던 현 오석은 《유신》 독재시기 경제 기획원에서 복무한자이고 국토 교통부 장판 서승환은 《유신》 독재시기의 국방부 장관의 아들 이다. 파쑈교형리들인 전 괴뢰정 보원장 남재준, 법무부 장관 황 교안 등도 모두 《유신》 잔당들 이다. 이전 《정권》에서 괴뢰보 훈처장으로 임명된 박승춘이라 는자가 현 《정권》에서 그대로 류임된 리유도 다른데 있지 않 다. 그가 바로 《유신》독재자를 찬양하고 《유신》 독재를 반대 하는 세력을 《종북세력》으로 몰며 악질적으로 놀아댄 《유

신》 족속이기때문이다. 최근 남조선집권자가 개각놀 음의 일환으로 새로운 통일부 장관을 지명한것과 관련하여 한 언론이 전한 글은 사람들로 하 여금 현 《정권》의 성격을 다

시금 되새겨보게 한다. 글은 현 집권자가 내세운 통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련결되여

장관으로 지명된 홍용표로 말하 면 《유신》독재시기 륙군참모 총장과 《대통령》 안보담당 특 별보좌관, 국방부 장관을 한 서 종철의 사위라고 썼다.결국 《유신》독재자의 앞잡이 서종 철의 아들인 국토교통부 장판 서승환에 이어 사위인 홍용표까 지 장판으로 될판이다. 퇴임을 앞둔 현 괴뢰통일부 장관 류길 재 역시 《유신》 독재자의 고문

이였던 류형진의 아들이다. 이밖에도 현 《정권》의 요직 들에는 《유신》독재자의 경호 원들의 모임인 《청호회》 출신 인물들이 들어앉아있다. 오죽했 으면 남조선언론들이 현 집권자 가 청와대와 내각에 《유신》독 재자와 인연이 있는 인물들을 전면적으로 끌어들이였다고 하 면서 《박근혜에 드리운 박정희 시대의 그림자들》이라고 비난

하였겠는가. 가시나무에 가시가 나온다고 《유신》 독재의 향수에 푹 젖은 이런자들에게서는 《유신》독 재식의 파쑈통치밖에 더 나올것 이 없다.

그런즉 남조선사회가 인민들 이 피흘려 쟁취한 민주화의 싹 마저 여지없이 짓밟힌 인권의 황량한 폐허지대로 전락된 원인 일부 장관들이 《유신정권》과 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은 불

보듯 명백하지 않은가. 본사기자 최철순

오늘 국제정세는 매우 복잡다단하 며 나라와 지역들사이의 관계구도가 끊임없이 변화되고있다.

어제날 대국으로 명성떨치던 나라들 이 무너져 그 나라가 행사하던 공백을 메꾸기 위한 세력권쟁탈이 치렬한가 하면 발전도상나라들이 미국의 일극세 계기도를 파탄시키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다.

그런가 하면 일부 발전된 나라들 이 여러차례의 경제위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전에 다른 나라들을 눈 아래로 보던 관점을 버리고 달라지 는 국제관계구도에 맞게 전략적방향 을 바로잡아나가고있다.

반면에 자기의 원칙적대를 세우 지 못하고 좌왕우왕하다가 제국주 의자들의 침략의 희생물이 되여 발전하는 시대적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 영영 현대판식민지로 굴러 떨어질수 있는 위험에 빠져있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제국주의자 들에 대한 환상에 물젖어 원칙을 포기하고 양보와 타협의 방법으로 부닥치는 난판을 피해보려는 나라 들도 있다.

현시기 국제무대에서는 각이한 정 세변화가 한해가 다르게 일어나고

특히 대국들의 지도부가 바뀌고 국 회에서 차지하는 의석수에 따라 여야 당의 처지가 바뀌여지면 해당 나라의 정책이 하루아침에 달라지고 선임정권 의 정책이 물거품이 되여 국제관계구 도가 새롭게 형성되는 변화도 자주 일 어나고있다.

현실은 매개 나라와 민족들이 변화 되는 국제정세와 관계구도형성에 어떻 게 대처해나가야 하며 나라와 민족의 리익과 존엄, 자주권수호를 위하여 어 면 원칙을 견지하고 투쟁해나가야 하 는가 하는 대외정책적과제를 제기하게 하고있다.

지난 세기 후반기의 력사발전과정을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는 사회주의진영과 제국주의렬강들, 신흥 세력나라들로 세력구도가 형성되여있

그러나 이것은 형태적인 구도였으 며 그안에서는 령토문제와 세력권쟁 탈, 경제무역관계를 비롯한 각양각색 의 모순과 대립으로 충돌과 마찰이 일 어나고있었다.

문제는 그 시기 형성된 국제적인 세력구도에 전적으로 매여 자기의 전략적로선들을 취한 나라들과 조 성되고있는 국제정세변화의 추이에 따라 돛을 단 나라들,제국주의의 반동성과 반인민성,취약성을 꿰뚫 어보고 자주적로선을 견지한 나라 들의 국력이 지금에 와서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나타나고있다는데 있다.

당시에는 매개 나라들의 정책적 우월성과 생활력이 크게 차이나지 는 않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갈라지고있는것이 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력은 결코 국내총생산액이나 무역액, 미싸일, 함선의 수량을 놓고 말하는것이 아

그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끄떡없 이 전진할수 있는 인민들의 단결력 과 국방력의 토대,경제적잠재력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것을 념두에 두 는것이다.

일부 나라들에서 기준으로 삼고있 는 발전지표의 수자가 높다고 하여 국 력이 강하다고 보는것은 겉만 보고 평 가하는 하나의 치레거리에 불과하다. 전례없이 로골화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강권과 압력을 물리칠수 있는 힘이 없으면 도대체 국력에 대하 여 론할수 없다.

지난 시기에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 력이 발전하였다고 자랑하던 나라들 이 얼마나 많았는가.

가 허물어지는것과 동시에 미국의 무자비한 침략전쟁의 희생물이 되 였다.

랭전의 종식은 힘의 정책의 파산 을 의미하였지만 미국은 여전히 힘 에 의한 정책에 매달려오고있다.

미국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것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평이다. 어리석 은 미국의 힘의 정책에 의해서 망하 나라들을 보면 레외없이 어느 한 대 국이나 국제기구에 기대를 걸면서 자체의 국력을 키우지 못한 나라들 이였다.

랭전시기 그 어느 대국이나 국제 기구도 작고 약한 나라들이 미국의 침략의 희생물로 되는것을 막아주지 못하였다.

유엔안에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쟁 과 강권행위를 막지 못하였다.

력사는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주변관계구도가 어떻게 바뀌여도 나 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킬수 있는 국력을 튼튼히 다져나가 야 한다는것을 뼈저리게 가르쳐주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 국제정세가 어 떻게 변하고 주변관계구도가 어 바뀌든 우리의 사회주의제 떻게 도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책동이 계속되는 한 선군정치와 병진로 선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것입니다. 》

우리 당의 선군정치, 병진로선은 그 어떤 정세변화나 관계구도형성에도 변 함없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사회주의를 튼튼히 수호할수 있게 하 는 가장 위력하고 정당한 정치방식, 전략적로선이다.

우크라이나사태를 둘러싼 유럽과 중 동지역, 조선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 아지역이라고 볼수 있다.이 지역들 을 둘러싸고 국제정세는 부단히 변화 되고있으며 대국들의 세력관계구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바뀌고있다.그 속에서 작은 나라들은 큰 나라들사이 의 관계속에 종속되여야 한다는 관념

한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기도 하 고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 략적선택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국제 관계구도나 다른 나라와 지역, 국제기 구들에 미련을 가질것이 아니라 자기

밑에 어떤 대외정책을 실시할것인가

를 고심하기도 하고있으며 이미 선택

자기의 힘이 제일이다. 이것은 력사 의 교훈이며 진리이다.

의 힘을 믿는것이다.

현시기의 국제정세를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나라가 동란을 겪고 인민이 도탄에 빠져있는 나라들을 보면 례외 없이 자기의 힘을 믿지 않고 남에게 기 대를 건 나라들이다.

시련과 난판앞에서 동요하고 주저 하며 원칙을 양보하고 적대세력들 앞에서 타협, 굴복한 나라들은 갈데 없이 자기의 힘이 약하다는 사고판 점에서부터 출발하여 로선을 선택 하였다.

나라의 전략적로선을 선택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는것

자주의 원칙은 매개 나라와 인민들 이 그 어떤 로선상착오나 탈선도 없이 복잡한 국제정세에 구애되지 않고 나 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부흥발 전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하 고 위력한 원칙이다.

그 어떤 첨예한 국제문제가 발생하 였을 때 매개 나라들은 여러가지 각도 에서 전략적선택을 하게 된다. 그때 자기 인민의 힘을 무시하고 국제기구

식을 취하는것은 벌써 자주성을 요구 하는 인민대중의 요구를 짓밟는것으 로 되며 자주의 원칙에서 탈선하는것 으로 된다.

자기 나라의 실정과 구체적조건에 맞게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자 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나라 와 민족이 그 어떤 풍파나 우여곡절 을 겪지 않고 곧바른 길로 나갈수 있다.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복잡다단한 국제정 세속에서 자주성을 짓누르려는 제국 주의자들의 책동을 물리치기 위해서 는 언제나 자주의 신념과 함께 자기 를 지킬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한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 기간 자주로 일관된 대외정책적립장을 확고히 견 지하면서 승리만을 떨쳐왔다. 자주는 우리의 생명이고 운명이다.

오늘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제 국주의자들의 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악랄해지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선군 정치와 병진로선을 더욱 튼튼히 틀어 쥐고나아갈것이다.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주변관계 구도가 어떻게 바뀌든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 책동이 극도에 이르고있는 오늘의 현 실은 우리에게 총대를 더욱 강화하고 국력을 보다 튼튼히 다져나갈것을 요 구하고있다.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자주의 원 칙을 견지하며 승리해온 우리 혁명 의 력사와 오늘의 국제정세는 선군 정치와 병진로선이 얼마나 정당하고 위력한가 하는것을 뚜렷이 증명해주

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선택은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베닌 《김정일장군 만세》친목 회, 주체사상연구 베닌전국위원 회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침 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 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5일 공 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지금 조선반도에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벌려놓 은 무분별한 전쟁연습으로 극히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 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뜻깊은 올해에 북남관계에서 의 대전환,대변혁을 가져오 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 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당국 은 침략적인 전쟁연습으로 전체 조선민족과 세계평화애 호인민들을 우롱하면서 조선 반도를 기어이 핵전쟁의 참 화속에 몰아넣으려고 발악하 고있다.

조성된 사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동 북아시아지역의 긴장을 격화 시키는 장본인이 바로 미국 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당 국이라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당국 이 벌리고있는 위험천만한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 사연습을 준렬히 규탄한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조선 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

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 미 국과 남조선당국의 전쟁책동 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 여야 할것이다.

최후의 승리는 정의의 위업실 현에 떨쳐나선 조선군대와 인민 에게 있다.

일본 에히메현대조선문제연 │ 구소 대표 나다 다까시가 최근

인터네트홈페지에 우리 공화국 을 반대하는 미국과 남조선당국 의 침략책동을 규탄하는 글을 올렸다.

필자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해마다 벌리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침 략적성격과 그 위험성에 대 하여 까밝히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은 항시적으로 조선민 미국은 항시적으로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체 제를 파괴하기 위한 책동을 벌리고있다.

그것이 집대성된것이 바로 군사연습이다.

올해 1월 미국남조선련합 사단참모부가 공식 편성되여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목적은 특수작전으로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무너

회

외

장

뜨리자는데 있다. Oŀ 올해 합동군사연습에 이 련합사단참모부도 참가한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 동군사연습의 내용은 해마 파 다 더욱 흉악해져 연습이 언 제 전쟁으로 번질지 알수 없 는 위험한 단계에까지 이르 렀다.

> 합동군사연습을 정당화하 기 위해 미국은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의 《위협》과 《도발》에 대해 떠들고있다.

> 조선반도에서의 미국의 군 사연습은 공화국이 핵을 보유 하기 전부터 진행되여왔다. 왜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연습을 벌리는것인가? 그것은 미제국주의의 호전 성에 기인된다.

미국이 떠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무너뜨린 이후 《통일》을 의미하는것이다.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은 중지되여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 출 판 보 도 불 여래

로씨야, 도이췰란드, 브라질출 판보도물이 마식령스키장을 소개 하였다.

8일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조 선에서 평양-마식령관광뻐스가 운행을 시작하였다고 하면서 다 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령도자의 발기에 따라 건 설된 마식령스키장에는 모든 사 람들이 리용할수 있는 10개의 스키주로가 있다.

불빛이 환한 스키주로에서 사 람들은 야간에도 스키를 탈수

어느 한 산정에는 비행물체형 식으로 건설된 식당도 있다. 편 리하 삭도를 수 있다.

마식령의 좋은 날씨와 적합한 기후로 하여 이곳은 더할나위없 는 겨울철휴양지이다.

마식령스키장은 조선의 많은 스 키애호가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

잣》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 은 글을 올렸다.

이전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의 마식령에 세계적인 스키 장이 건설되여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을 끌고있다.

호텔과 스키봉사 및 숙소건물 들이 특색있게 꾸려진 마식령스 키장은 스키장으로서만이 아니 라 관광지로서의 매력도 가지고 있다.

세계적인 마식령스키장은 전 적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몸소 마식 령스키장건설을 발기하시고 력 사적인 호소문을 발표하시였으 며 산세험한 건설장을 여러차례 찾으시여 군인건설자들에게 크 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고 공사를 최단기간내에 끝낼수 있 는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개장을 앞둔 마식령스키장을 찾으시여 삭도를 타시고 정점까지 오르시며 안전성 트홈페지는 6일 《마식령스키 과 편리성을 료해하시였다.

녀성들의 권리보장문제에 대해 언급 캄보쟈수상 훈 센이 8일

국제부녀절에 즈음한 행사 에서 연설하면서 녀성들의 권리보장문제에 대해 언급 하였다.

설들을 더 건설하도록 은정어린 그는 정부가 지난 기간 남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세계가 관심하는 마식령스키 노력한 결과 정치, 경제, 문화를 장은 오늘도 좋지만 래일은 더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녀성들의 지위가 현저히 개선되였다고 말 브라질주체사상연구쎈터 인 하였다. 터네트홈페지는 2월 26일

정부는 앞으로도 녀성들의 권 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계 속 힘을 넣을것이라고 그는 강

\* 위하여 마식령스키장건설을 직 나가 7일 3.8국제부녀절에 즈 하였다.

음하여 발표한 서한에서 녀성들 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할 립 장을 밝혔다.

서한은 정부가 녀성문제 해결에 선차적인 판심을 돌려왔다고 하면서 이미 녀성들에 대한 폭력행위를 방지하고 그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 가정책이 작성된데 대해 언급하였다.

앞으로 더 많은 녀성들을 정 치, 군사, 사법, 교육 등 여러 분 야의 활동에 적극 참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지적 하고 서한은 이것은 국가발전을 방글라데슈수상 쉐이크 하시 더욱 추동하게 될것이라고 강조

##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 .를 위하여 ᆘ┈┈

비행전술훈련 진행

로씨야의 바렌쯔해에서 최근 중부군판구 전투기들의 비행전 술훈련이 진행되였다.

훈련에는 《M и Γ — 31》전투 기와 《C y — 24M》전술폭격기 승조원들과 조기경보기, 정찰기 승조가 참가하였다.

훈련과정에 비행사들은 118 차례 출격하였으며 가상적의 미 싸일들과 비행기들을 소멸하였 다 한다.

6일 중부군관구 공보부가 밝

혐 아랍추장국련방과 부르끼나 한 려객수는 지난

말따가 항공운수 를 발전시키는데 힘

정을 체결하였다.

고있다.

하였다.

항공운수발전 을 넣어 성과를 거두

2월에 이 나라 국제비행장을 통과

해 같은 달에 비해 8.1% 늘어 파쏘가 7일 령공개방에 관한 협 났다. 최근 비행장운영당국이 이에 최근 베네수엘라와 트리니대드

토바고는 두 나라 국경수역에서 대해 밝혔다. 천연가스개발을 공 동으로 추진할데 관

한 협조문건에 조인

이 란 에 서 도마도수확

##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탄압만행 의 고기배들을 포위하고 제로끌어갔으며이에 항거해나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티나인 들에 대한 탄압만행에 계속 매 여달리고있다.

최근 이스라엘군은 함선 들을 내몰아 가자지대 앞 였다.

무차별적인 사격을 가하 였다.

결과 2명의 어부가 부상당하

서는 4명의 팔레스티나인들을 체포하였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만행은 현지주민들의 격분을 자아내

## 미국 신형무기시험

미국이 신형무기개발에 계속 광분하고있다. 록키드 마틴회사가 1mile이상 한 레이자무기체계를 설치하는데

계시험을 감행하였다. 시험은 군용비행기와 직승기, 최근 미국의 군수독점체인 함선과 차량들에 경량화되고 견고

의 거리에서도 자동차기판을 목적을 두고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 역 적 통 합 을 한 동아프리카나라들의 노력

동아프리카나라들이 최근 지역 계획실현에서 거둔 지역나라들의 적통합을 위해 노력하고있다. 그 한 고리로 7일 르와다에 서 북부통로통합계획에 관한 지

역나라들의 수뇌자회의가 진행 되였다. 회의에는 우간다, 탄자니아, 케 니아, 르완다, 부룬디, 에티오피 아, 남부수단 국가수반 및 정부대 표들이 참가하였다.

## 회의참가자들은 북부통로통합 한다. 미사법성 사회적으로 인종차별이 만 연 되 고 있 다 고

미사법성이 최근 한 보고서에 을 취하였다. 서 사회적으로 인종차별이 만연 되고있는데 대해 자인하였다.

보고서는 퍼구슨시에서 벌어 진 사태는 제도적으로 묵인, 조 장되고있는 인종차별의 심각성 을 드러냈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퍼구슨시의 경찰당국과 사법 당국은 교통단속과 국가권력의 발동, 감금형실시 등 여러 측면 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불공평한 인종차별적인 조치들

세계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과도한 유희오락의 후과로 청각

지난해 현지사법당국이 흑인 청년을 살해한 백인경찰에게 불 기소처분을 내린것이 바로 그 대표적실례이다.

또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의 기간에 자동차를 몰고가다가 경 찰에 의해 단속당한 사람들의 85%가 흑인들이였는데 그것은 백 인들에 비해 2배나 더 많았다.

은 사람들의 대다수도 흑인들 이였다. 파도한 유희오락의 부정적후과

한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그러

한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의 수

용극소형콤퓨터에 전송한다.

3D안경을 낀 사용자들은 대화

방식으로 주위환경에 대한 정보

를 모두 입수하는데 교통신호등

의 색갈과 장애물을 구별할수 있

으며 혼자서 무엇이든 읽거나 길

을 따라 걸어갈수 있다고 한다.

#### 장애를 겪고있다. 는 거의 11억명에 달한다고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발표 한다. 시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안경 개발

최근 어느 한 나라에서 시력 을 상실한 사람들을 위한 3D안

경을 개발하였다. 안경은 대상물인식기능과 전지구위치측정체계(GPS)의 기 능을 가진 2대의 록화촬영기의 도움으로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 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휴대

고 앞으로 이를 통한 통합과정을 더욱 다그쳐 지역의 번영을 이룩 할것을 호소하였다. 현재 동아프리카나라들은 북부 통로통합계획에 따라 하부구조,

경제무역발전성과에 대해 평가하

에네르기, 운수, 정보통신기술, 무역 등 분야에서 통합을 이룩하 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있다 자 인

지만 이 모든것이 미국을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것을 강조하였다. 경찰의 박해와 감금형을 받

> 때문이다. 지난 세기 파쑈도이췰란드는 전유럽 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의 중요자 원지대를 포괄한 거대한 식민지제국을 창설하려는 야망을 품고 침략전쟁에 미쳐날뛰였다.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전쟁에 쏟아부었으며 인종《우월론》을 제창하면서 타민족에 대한 대량학살만 행을 일삼았다. 유럽의 거의 전부가 파 쑈도이췰란드의 강점하에 들어가게 되 였다. 하지만 그처럼 기승을 부리던 파 쑈도이췰란드의 운명은 오래가지 못하

쑈도이췰란드의 운명을 뒤따르고있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힘이 더는 통 하지 않고있다. 미국이 세계제패야망 을 실현하는데서 주요기둥으로 삼고있 는것은 군사적힘과 딸라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금융체계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세계제패전략을 실 현하기 위하여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 하면서 현대적인 무장장비 특히 핵무 기개발과 생산에 박차를 가하여왔다. 세계 곳곳에 군사기지를 설치하여놓고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의 내 정문제에 사사건건 개입하며 훈시질을 하여왔다.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군사 적힘의 사용도 서슴지 않았다. 경제적 으로는 딸라를 수단으로 미국의 독점 적지배체계가 수립된 경제의 세계화를 실현하려고 책동하였다. 말그대로 핵 무기와 딸라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몸 뚱이를 유지하는 기둥으로 되여왔다. 그런데 이 두 기둥이 무너져내리고

있다. 맥을 추지 못하고있다. 지난 시기에는 미국이 군사적힘을 턱대고 다른 나라 들에 저들의 의사를 제멋대로 내리먹 이였다. 지금은 그것이 잘 통하지 않고 있다. 적지 않은 나라들이 미국에 반기 를 들고 나서고있다. 동등한 지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있으며 그 렇지 않으면 미국과 마주앉으려 하지 않고있다. 미국은 무엇을 하나 하자고 해도 《타협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리

놓이게 되였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무력을 증강하고 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하는것 이 이 지역에 있는 대국들을 겨냥한것이 아니라고 구차하고 뻔뻔스러운 변명을

한것으로 되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얼마전에도 미국의 하수인노릇을 하 는 이스라엘이 이란핵문제를 놓고 제 주장을 고집하며 미국에 도전하여나섰 다. 제 리익에 맞지 않으면 자기대로 움직이겠다는것을 로골적으로 암시하 였다. 여기에는 큰 나라들의 눈치를 보 아가며 햇동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미

세계도처에서 미국이 이제는 동맹국 들이 떡떡 맞서고 삿대질을 해대도 어 쩔수 없는 처지에 빠졌다고 야유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미국도 이것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어쩔수 없 는 처지에 놓여있다. 그만큼 미국이 대 외정책실현의 주요수단으로 삼고있는 군사력이 맥을 추지 못하고있기때문

미국은 현대적인 군사장비들과 방대 한 병력을 동원하였지만 아프가니스탄 을 평정하지 못하였으며 이라크에서도 쓴맛을 보았다. 이것은 미국이 더는 군 사적힘으로 세계를 다스릴수 없는 처 지에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세계지배를 위한 미국의 전략적기둥 의 하나인 딸라의 지위도 급속히 허물 어져가고있다. 지금 미국은 현 국제금 융체계를 악용하여 민족화페들을 딸라 에 얽매여놓는 수법을 쓰고있다. 해당 나라들이 저들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에는 제재를 발동하여 국제적인 은행 결제를 차단하거나 환률전쟁을 일으키 며 저들이 통제하는 국제금융기구들을 리용하여 그 나라들을 빚진 노예로 만 들고있다. 이미 적지 않은 나라들이 그 피해를 보았다. 이로부터 많은 나라들 이 딸라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금융

체계에서 벗어나려 하고있다.

이미 이란은 로씨야, 중국, 인디아와

의 원유거래에서 딸라를 배제하는 여 러건의 대규모협정들을 체결하였다.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이 로씨야와 중국 과의 무역결제에서 같은 방식으로 넘 어가려 하고있다.세계적으로 지역화 페를 내오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지 고있다. 미국딸라채권을 가지고있는 나라들에서 그것을 팔아 금을 사들이 거나 다른 전환성화페로 교체하는 바 람이 일고있다. 미국자신이 그렇게 만 들었다. 오래전부터 미국은 방대한 군 사비와 재정적자문제해결을 위해 딸라 를 마구 찍어 람발하고 아무런 담보도 없는 채권을 대량 발행하여왔다. 이것 은 미국을 세계최대의 빚쟁이로 만들 었다. 많은 나라들과 투자가들이 미국

하여나섰다.

의 채권이 한갖 종이장에 지나지 않는 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였다. 이런 조건 에서 만일 미국채권을 가지고있는 나 라들이 그것을 배척하는데로 나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하는것은 가히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러한 가 운데 앞으로 세계금융중심지가 아시아 로 옮겨질것이라고 전망하는 견해들이 나오고있다. 이것은 미국이 국제금융

을 보여준다. 딸라의 지위가 허물어진다는것은 곧 미국이 제국으로서의 패권적지위를 잃

계에서의 지배적지위를 잃고있다는것

는다는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자체의 심각한 사회적모순을 안고있다. 미국에서는 인종적 및 민족 적, 종교적차별이 매우 심하다. 세계적 으로 사회적불평등과 빈부의 차이가 가장 심한 나라로 알려져있다. 1%밖 에 안되는 특권부유층들이 사회적재부 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으며 그것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이것이 사

적지 않은 미국인들이 저들을 파국 에로 몰아넣는 당국의 부당한 정책과 사회제도에 대한 불만을 품고 극단적

작전을 내용으로 하는 군사훈련을 벌

미국에는 이러한 경향을 가지고있는 조직이 120개가 넘는다고 한다.미 당국은 이런 조직들이 행동으로 넘어 가는것을 막기 위한 국내폭동진압계획 을 세우고 그에 따라 군대까지 동원되 여 대대적인 훈련을 하고있다. 미국의 대중보도수단들은 진짜 국내전쟁이 일 어날수 있다고 떠들고있다. 한 경제전 문가는 미국에서 경제적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커질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2015년-2016년에 불피코 심 각한 정치적동란을 초래할것이라고 말 하였다. 미국의 말기증상을 보여주는

미국이 쇠퇴몰락하며 멸망의 길로 줄달 음치고있다는것은 더 론할 여지가 없다.

노르웨이의 수학자이며 사회정치학 자인 요한은 이미전에 미국이 국제법 을 무시하고 침략전쟁정책에 매달리고 있는것으로 하여 수렁에 빠져들고있다 고 하면서 2020년에 아메리카제국 이 무너진다고 예언하였다. 뽈스까신 문 《가제따 븨보르챠》는 미국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파멸되고있으며 로 마제국으로부터 시작된 패권주의국가 들의 몰락과정이 미국에로 이어지고있

세계는 이것을 직접 목격하게 될것이다. 리 학 남

#### 을 해설글과 함께 편집하였다. 비다에서 팔레스티나인들 이어 이스라엘군은 배들을 강 고있다. 파괴할수 있는 레이자무기체 파쑈도이 췰란드의 운명을 뒤따르고있다 미국이

요즘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미국의 종말에 대한 소리가 계속 나돌고있다. 이러한 속에서 얼마전 로씨야신문 《쁘 라우다》가 《미국이 전면전쟁에 대처할 준비가 되여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그이께서는 완공후 전국의 청

소년학생들이 여기서 겨울철야

영도 할수 있게 숙소와 봉사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

된 마식령스키장을 돌아보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다음과 같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인민들에

군인건설자들은 10년이상 걸

려야 할 대규모스키장건설을 짧

은 기간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

홈페지는 마식령스키장의 스

키주로와 봉사시설 등의 사진들

게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접 발기하시고 그 과업을

군대에 맡겨주시였다.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욱 훌륭할것이다.

글을 올렸다.

하였다.

실어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있다. 글은 미국에서 파시즘이 재현되고있 는데 그것은 민족배타주의와 인종주 의, 침략전쟁을 광란적으로 고취하는 파시즘이 오늘날 미국의 국가사상으로 되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 다고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 설명하였 다. 그러면서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저 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금융 체계를 악용하고있다는것, 이것도 통 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나라들을 악마 로 둔갑시키고 침략전쟁을 도발한다는 것, 파시즘을 대외정책실현수단으로 삼은 미국때문에 새로운 세계대전 지 어 열핵전쟁도 일어날수 있다는것, 하

요컨대 미국이 세상에 저들밖에 없 는것처럼 놀아대지만 파쑈도이췰란드 가 세계제패야망에 미쳐날뛰다가 종말 을 고한것처럼 반드시 멸망한다는것이 다. 미국이 그 징표를 충분히 갖추었기

였으며 종당에는 멸망하고말았다.

신통히도 미국이 그 전철을 밟고있

다. 침략과 략탈, 강권과 전횡으로 살

【조선중앙통신】 씨고 번창해온 미국은 제가 저지른 죄

다. 미국의 운명은 이미 파멸과정의 말 기에 들어섰다.

미국이 만능으로 여기는 군사력이 해》를 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늘어놓고있는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 다. 지난 시기에는 미국의 말이라면 응당

국은 더는 믿을것이 못된다는 심리가 작용하였다고 볼수 있다.

이다.

세계적으로 무역결제에서 민족화폐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국제무역에서 민족화페리용을 장려할데 대하여 주장

> 인 행동을 하고있다. 몇해전 미국에서는 정부를 반대하는 전쟁을 준비하고있던 그리스도교민병 대조직이 적발되고 여러 주들에서 그 성원들이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들은 미국을 그리스도교공화국의 식 민지로 만든다는 목표밑에 정규군특수

것이라고 할수 있다.

다고 보도하였다. 미국의 멸망은 피할수 없는 현실이다.

편 집 위 원 회

¬─510404 (정기간행물번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제3조)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